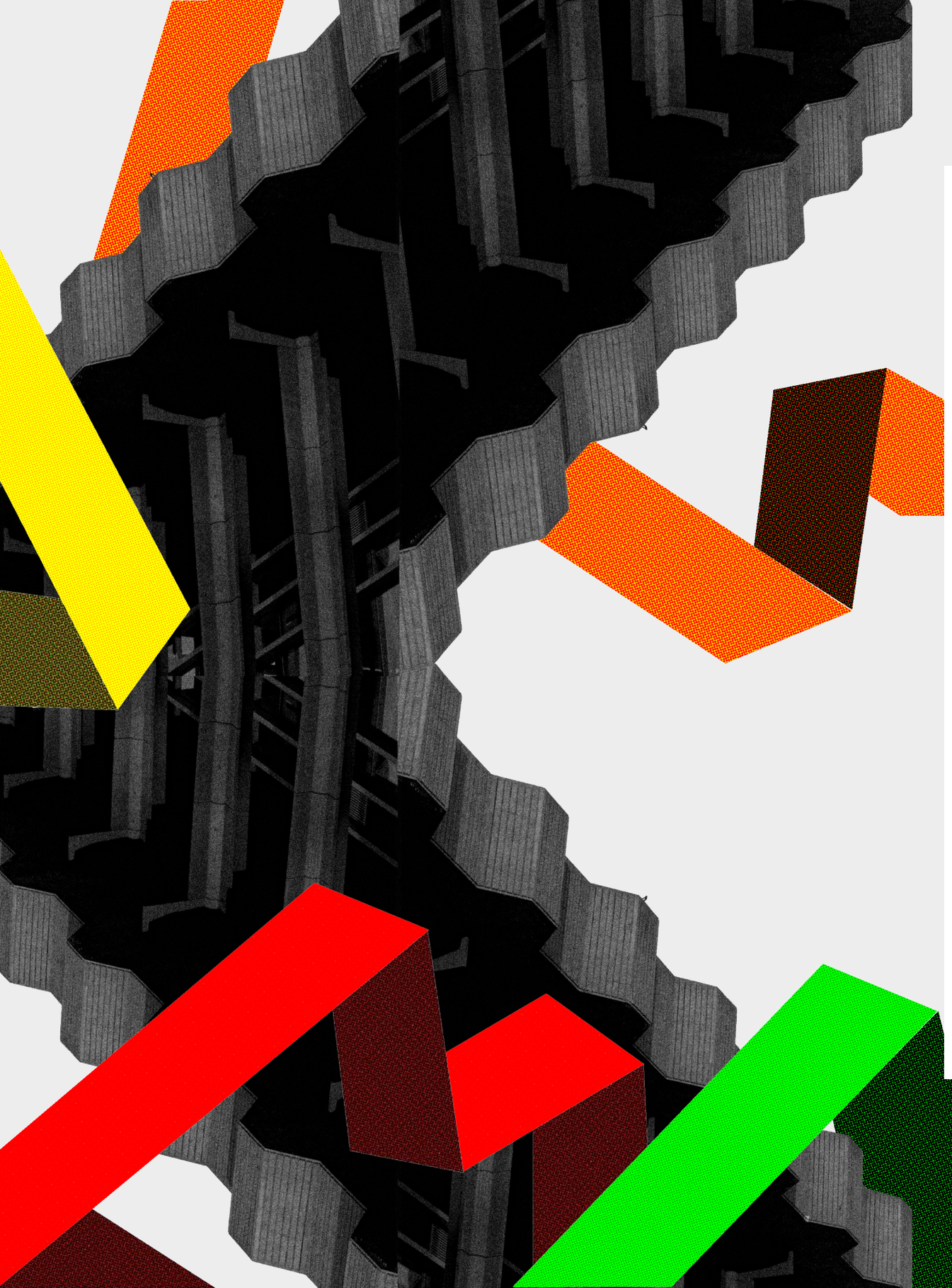

VER.2
2026-2027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NATIONAL REPERTORY SEASON
2026/08/21(금) - 2027/06/27(일)
국립극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목차 Contents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예매안내 Booking Information

패키지 티켓 Package Ticket

2026년 하반기 공연일정 2026 PROGRAM

2027년 상반기 공연일정 2027 PROGRAM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Productions

공동주최 Collaborations

인사이드 국립극장 NTOK Inside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on a category to move to the corresponding page.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

1950년 창설한 국립극장은 전통예술을 동시대적 예술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공연예술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창설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대의 예술가, 그리고 관객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국립극장은 2012년, 공연 라인업을 미리 공개하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도입하고,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자체 제작 공연과
국립극장 기획 공연으로 양적 · 질적 측면에서 더 좋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집중해왔습니다.
우리 전통공연예술을 새롭게 창조하여 세계에 내놓는 국내 유일의 제작극장.
남산의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자연을 닮은 우리의 예술적 심성을 이어가는 극장.
국립극장의 무대에 앞으로도 눈과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0,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has remained a cornerstone
of the nation's cultural narrative, devoted to the vital task of transforming traditional arts
into a living, contemporary language.
For more than seven decades it has moved in step with the history of Korean performance,
forever composing a new legacy alongside the visionaries and audiences of our time.
With the 2012 inauguration of the 〈NTOK Repertory Season〉 — a bold initiative that unveils
each year's artistic vision with foresight and intent — the National Theater has committed itself
to uncompromising artistic refinement.
Through the masterful work of our resident ensembles —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the National Dance Company, and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alongside our own
in-house productions, we reach for ever-greater heights in both ambition and depth.
As Korea's foremost producing theater, we are dedicated to reimagining our heritage
and bestowing it upon the world. Cradled in the serene embrace of Namsan,
our theater breathes with the spirit of the mountain, giving voice to an artistic grace
that mirrors the natural world.
We invite you to remain part of this journey, keeping your gaze fixed
upon the stages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s we turn toward the years ahead.



예매안내

Booking Information

온라인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24시간 예매 가능

* 단, 공연 관람 1일 전에는 오후 5시까지 예매 가능

전화 예매

고객지원센터 02-2280-4114

서비스 번호 선택

- 1번 공연 안내 및 예매
- 2번 패키지 티켓 안내 및 예매

현장 예매

고객지원센터 방문(해오름극장 L층)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주말 · 공휴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무
(공연 유무에 따라 탄력 운영)

개별공연 할인

엔톡(NTOK) 회원 최대 20% 공연별 상이

문화패스(만 24세 이하 청소년 혹은 대학생) 최대 40%

경로할인(만 65세 이상) 최대 50%

* 더 자세한 할인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 참조

티켓 수령

관람 당일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수령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 일부 공연 제외

티켓 수령 시 할인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시

* 미지참 시 차액 지불

취소 및 변경

공연 관람 1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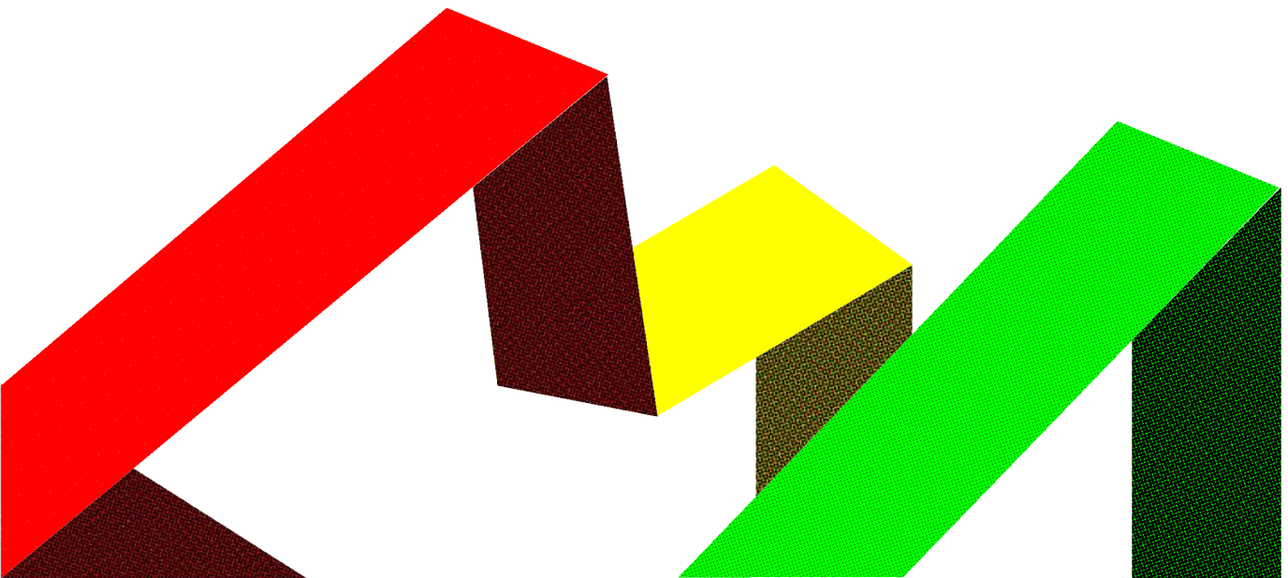
* 관람 당일 티켓 취소 및 변경 불가

국립극장

02-2280-4114 / ntok.go.kr

NOL

1544-1555 / nol.yanolja.com/ticket



Purchase online or via mobile device

Go to the website or via mobile

Sign up as a member or log in

Select performance, date, time and seat

Select payment option and complete payment

Purchase via phone

Customer Support Center +82-2-2280-4114

Connect via phone and talk with a customer service agent

Customer Support Center Operating Hours

- Weekdays: 09:00-18:00
- Weekends · Holidays: 10:00-18:00
- Lunch Break: 12:00-13:00

Closed on Mondays when it’s a public holiday

(flexible operation depending on performance schedule)

Purchase on site

Haeoreum Grand Theater at National Theater of Korea

Visi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on the ground floor

Picking up tickets

As the box office gets crowded before performances,
we recommend arriving at the venue
at least 3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starts
to pick up your tickets.
When picking up tickets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please present your ID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driver’s license)
or your reservation confirmation (reservation number)
at the box office for quick service.
Complimentary tickets from events or gift vouchers can also be collected
at the box office after verification.

패키지 티켓

2026-2027
National Repertory Season
Package Ticket

자유로운 선택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시즌

프리패키지 II

50% R석 70세트 / S석 50세트
(총 120세트)

2027/1/3 - 2027/6/27 작품 중 9작품 이상 선택

※ 프리패키지 R석 구매 시, 특별 문화행사 초청 및 음료권 또는 프로그램북 교환권 2매 제공

· R석/S석으로 선택 가능하며, 전 작품 동일 등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균일석 제외)
· 완창판소리, 정오의 음악회, 마당놀이, NT LIVE 작품은 제외됩니다.
· 국립오페라단 <신년음악회>는 S석만 선택 가능합니다.
· 구매 완료 후 선택한 구성(공연 및 개수) 변경은 불가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만나는 한국춤의 무한대의 매력

NDCK 패키지

35% ~~90,000원~~ 58,500원
R석 / 50세트

· <미인>, <파이브 바이브>

정기적으로 만나는 우리 소리, 우리 음악의 즐거움

완창판소리 패키지 II

35% ~~80,000원~~ 52,000원
균일석 / 50세트

2027년 상반기 4편

정오의 음악회 패키지 II

35% ~~90,000원~~ 58,500원
R석 / 100세트

2027년 상반기 3편

국립극장이 선택한, 영상으로 만나는 영국 화제작

NT Live 패키지 II

30% ~~40,000원~~ 28,000원
균일석 / 50세트

2027년 상반기 2편

· NT Live 는 공연 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패키지 티켓 예매 안내

· 모든 패키지는 동일 공연으로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각 패키지 선택 후 일부 공연의 부분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국립극장 엔톡(NTOK) 회원만 1인 2세트 구매 가능하며,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매 후, 공연별로 좌석을 지정해야 예매가 완료됩니다.

· 패키지 구매 후, 좌석 미지정 시 선택 공연의 매진으로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패키지는 해당 패키지의 첫 공연 1일 전 오후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첫 공연 관람 이후 개별 공연에 대한 부분 환불 및 취소 불가)

· 구입한 패키지 상품을 취소해야 환불이 완료됩니다.
(패키지 상품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결제 금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PROGRAM

☀ 해오름극장 ☾ 달오름극장 ☁ 하늘극장

08

8. 21.(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2026 작곡가 프로젝트**

8. 21.(금) - 8. 23.(일)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RE: MOVE ERA (리 무브 에라)**

09

9. 3.(목) - 9. 6.(일)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국립창극단 **귀토**

9. 3.(목) - 9. 6.(일)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국립극장 기획 **옹옹옹**

9. 4.(금) - 9. 5.(토)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태국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 **콘 : 라마끼엔의 이야기**

9. 9.(수) - 9. 10.(목)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국립창극단 **창극콘서트-흥보, 박을 타다**

9. 12.(토) - 9. 13.(일)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상하이 경극원 **지단 왕자의 복수**

9. 12.(토) - 9. 13.(일)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국립민속국악원 **독갑이댁 수레노래**

9. 17.(목) - 9. 18.(금)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창극단 **희경루방회도**

9. 18.(금) - 9. 19.(토)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해녀탐정 홍설록**

9. 18.(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 **협연의 연대기**

9. 19.(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9. 24.(목) - 9. 25.(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추석엔 국악가요**

9. 24.(목) - 9. 26.(토) ☾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혜성컴퍼니 **백만사**

9. 25.(금) ☀
국립극장 기획 **NT Live 서쪽 나라의 멋쟁이**

9. 26.(토) ☀
국립극장 기획 **NT Live 모두가 나의 아들**

9. 27.(일) ☀
국립극장 기획 **NT Live 더 피프스 스텝**

10

10. 8.(목) - 10. 11.(일) ☀
국립무용단 **더블빌:시나위**

10. 9.(금) - 10. 10.(토)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EMT **화성학 실습**

10. 9.(금) - 10. 10.(토)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마틸드 모니에르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

10. 15.(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10. 17.(토) - 10. 18.(일)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코끼리들이 웃는다 **찰나의 찰나**

10. 18.(일) ☾ PAMS X SPAF
떵샤의 모던댄스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

10. 21.(수) ☾
국립발레단 **청년교육단원 갈라콘서트**

10. 22.(목) ☾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결과보고회 **Fermata: 음악이 머무는 자리**

10. 23.(금) - 10. 25.(일) ☀
국립극장 기획 **2026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10. 23.(금) - 10. 25.(일)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라이트 오키나와**

10. 24.(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0. 28.(수) ☁
SNU공연예술센터 바른노래 프로젝트 **바른노래 - 머무는 빛**

11

11. 5.(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11. 6.(금) - 11. 8.(일) ☾
국립무용단 **2026 안무가 프로젝트**

11. 7.(토) - 11. 8.(일) ☁
국립창극단 **2026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11. 14.(토) - 11. 21.(토) ☀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백범**

11. 14.(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1. 25.(수) ☀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I **2026 디스커버리**

11. 26.(목) - 12. 5.(토) ☾
국립창극단 **오이디푸스**

11. 27.(금) - 27. 1. 24.(일) ☁
국립극장 기획 **마당놀이 춘풍처도 온다**

11. 28.(토) - 11. 29.(일) ☀
㈜엔돌프뮤직
양방언 솔로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 **UTOPIA - New Horizon**

12

12. 1.(화) ☀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12. 3.(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12. 8.(화) ☀
국립합창단 **한국 가곡의 모든 것**

12. 11.(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2026 윈터 콘서트**

12. 17.(목) - 12. 20.(일) ☾
국립극장 기획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12. 19.(토) - 12. 26.(토) ☀
국립무용단 **향연**

12. 26.(토) ☾
국립창극단 **2026 송년판소리-소리정담**

12. 31.(목) ☀
국립창극단 **2026 송년음악회-어질더질**

2027 PROGRAM

☀ 해오름극장 ☾ 달오름극장 ☁ 하늘극장
● 문화광장

01

26. 11. 27.(금) - 1. 24.(일) ☁
국립극장 기획 **마당놀이 춘풍처도 온다**

1. 3.(일) ☀
국립오페라단 **신년음악회**

1. 5.(화) - 3. 7.(일) ☾
트위스트 1971 공연제작소 **리턴 투 햄릿**

1. 8.(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2027 신년 음악회**

02

2. 4.(목) - 2. 9.(화) ☁
국립무용단 **2027 축제**

03

3. 4.(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3. 9.(화) - 4. 11.(일) ☁
극공작소 마방진 **리어왕외전**

3. 17.(수) - 3. 18.(목) ☾
국립창극단 **절창VII**

3. 19.(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II 음악 오디세이: 거상**

3. 20.(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04

4. 1.(목) - 4. 4.(일) ☀
국립무용단 **미인**

4. 1.(목) - 4. 4.(일) ☾
국립무용단 **파이브 바이브**

4. 8.(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4. 10.(토) ☀
국립극장 기획 **2027 함께, 봄**

4. 14.(수) - 4. 22.(목) ☾
국립창극단 **리어**

4. 22.(목) - 5. 5.(수) ☁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4. 23.(금) - 5. 2.(일) ☀
국립극단 **파우스트**

4. 24.(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4. 30.(금) - 5. 21.(금) ☾
(주)문컴퍼니 **노인과 바다**

05

5. 18.(화) ☀
국립합창단 **오월의 화음**

5. 20.(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5. 22.(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5. 28.(금) - 5. 29.(토) ☾
국립극장 기획 **NT Live 진지함의 중요성**

5. 29.(토) - 5. 30.(일) ☾
국립극장 기획 **NT Live 위험한 관계**

5. 29.(토) - 5. 30.(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애주가**

06

6. 3.(목) - 6. 6.(일) ☀
국립무용단 **겹**

6. 10.(목) - 6. 13.(일) ☾
국립극장 기획 **카운트 나인**

6. 11.(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V 신보(新譜)**

6. 19.(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6. 24.(목) - 6. 27.(일) ☀
국립창극단 **춘향**

귀토

항극콘서트-흥보, 박을 타다

2026 항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오이디푸스

2026 송년판소리-소리정담

2026 송년음악회-어질더질

절창Ⅶ

리어

춘향

완창판소리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on a performance title to view its page.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귀토
RABBIT'S EIGHT SUFFERINGS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9/3(THU) - 2026/9/6(SUN)
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50분 (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관객과 평단의 호평 속에 국립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창극 <귀토>가 2026년 세 번째 무대로 돌아온다.
고선웅 연출, 한승석 작창·작곡의 <귀토>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판소리 <수궁가> 이후의 이야기를 빚어낸 작품이다.
이상향을 꿈꾸며 용궁으로 향한 토끼의 여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과 희망을 유쾌한 웃음 속에 비춘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재치 있는 대사로 토끼와 용왕, 별주부가 벌이는 예측 불가의 소동이 펼쳐지고,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흥겨운 음악이 작품에 생동감을 더한다.
한바탕 웃음 뒤 남는 통쾌한 해방감과 여운을 기대해도 좋다.

Celebrated by critics and audiences alike,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beloved masterpiece, 〈Rabbit's Eight Sufferings〉,
makes its return for a third season in 2026.
Masterfully directed by Koh Sun-woong with music
composed and arranged by Han Seung-seok,
the work uses brilliant imagination to forge
a hilarious sequel to the famous pansori tale 〈Sugungga〉.
Following a rabbit's wild journey to the Underwater Palace
in search of paradise, it holds up a witty,
joyful mirror to our modern desires and hopes.
Packed with fast-paced storytelling, sharp dialogue,
and unpredictable chaos between the rabbit,
the Dragon King, and Turtle, the performance
is amplified by an infectious traditional score
that breathes life into every scene.
Join us for a night of boundless laughter,
exhilarating liberation, and a story that lingers
long after the curtain falls.

극본·연출 고선웅
작창 유수정 한승석
작곡·음악감독 한승석

"꾀가 아닌 진심을 통해 지금과 공감하는 새로운 수궁가"
- 조선일보

"이야기·음악·무대 삼박자를 갖춘 수작"
- 뉴시스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9/9(WED) - 2026/9/10(THU)
수·목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극콘서트-흥보, 박을 타다

Changgeuk Concert- Heungbo, Opening the Gourd

연출·극본 유은선
작창·음악감독 한승석
안무 김주연

판소리 '흥보가'의 해학과 온기를 노래와 움직임으로 경쾌하게 풀어낸 <창극콘서트-흥보, 박을 타다>. 흥보가 박을 타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지는 웃음과 노래, 뜻밖의 복을 더해 익숙한 고전이 살아난다.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겸 단장 유은선이 대본과 연출을 맡아 원전의 유쾌한 해학과 따뜻한 정서를 무대에 펼쳐낸다.
2026 청년교육단원들은 탄탄한 소리와 개성 있는 움직임으로 고전 속 흥보의 이야기에 젊은 에너지를 더한다. 한데 어우러지는 소리와 연주, 안무를 통해 흥보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늘의 관객에게 기분 좋은 웃음과 여운을 남긴다.

〈Heungbo, Opening the Gourd〉 is a vibrant changgeuk concert that masterfully blends song and movement to bring out the humor and warmth of the beloved pansori tale 'Heungboga'. The moment Heungbo splits the gourd open, a cascade of laughter, song, and unexpected blessings fills the stage - breathing new life into a familiar classic.
Scripted and directed by Yu Eun-seon, artistic director and head of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the performance beautifully captures the original work's delightful wit and heartwarming spirit.
Backed by powerful vocals and distinctive choreography, the 2026 Young Artistic Fellows infuse this timeless tale with a burst of youthful energy. Through a harmonious blend of voice, live instrumentation, and movement, Heungbo's story transcends generations
- leaving contemporary audiences with joyful laughter and a beautiful, enduring impression.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2026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2026 CHANGGEUK PLAYWRIGHT PROJECT SHOWCASE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11/7(SAT) - 2026/11/8(SUN)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35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지난해 첫걸음을 뗀 국립창극단 '창극 작가 프로젝트'가
2026년 두 번째 시연회로 관객을 만난다.
창극 창작의 출발점이 되는 탄탄한 극본 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작가들이 가진
새로운 이야기와 시선을 무대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은 멘토링과 창작 워크숍을 거쳐 작품을 다듬고,
이번 무대에서 각기 다른 색의 단막 창극으로 선보인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창극의 언어가 젊은 상상력과 만나 신선한
소재와 새로운 인물을 빚어낸다.
관객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창극의 새로운 얼굴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다음 무대를 향한 생생한 에너지를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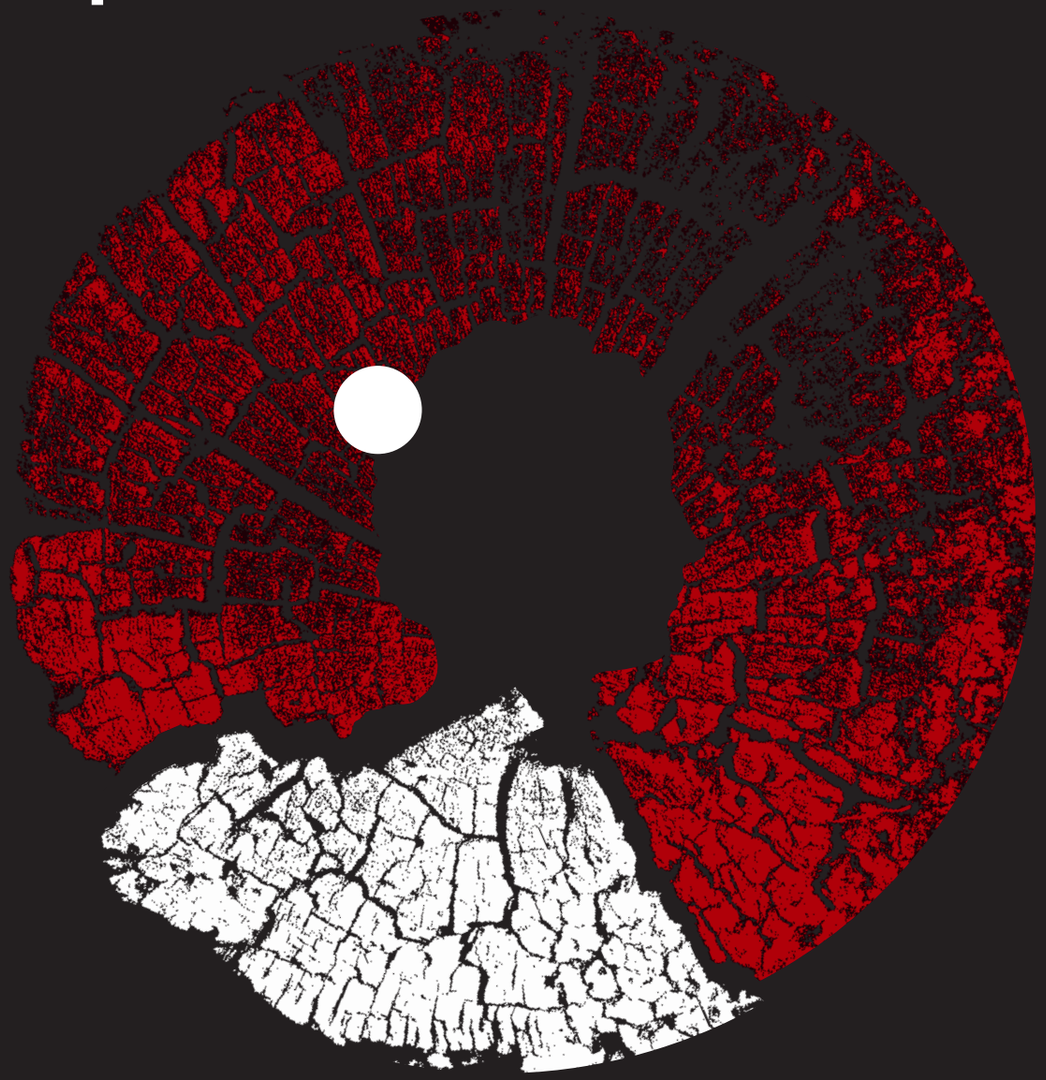
Following its successful debut last year,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Changgeuk Playwright Project' returns for its second showcase in 2026. Designed to develop the strong scripts that serve as the foundation of changgeuk creation, the project nurtures next-generation writers - helping them translate fresh stories and unique perspectives into the language of the stage.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the playwrights refine their works through mentorship and creative workshops, then present distinct one-act changgeuk pieces at the showcase. Here, the traditional pansori-rooted language of changgeuk merges with youthful imagination to forge unexpected subjects and entirely new characters. Audiences will be the very first to witness the changing face of contemporary changgeuk - experiencing a vibrant, raw energy that points directly toward the next generation of theater.

멘토 고선웅 한승석
작가 강예진 김태희 장혜린 조남수
작창 강나현 이연주 장서윤 정지혜

O E D I P U S

오 이 디 푸 스

창 극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오이디푸스
Oedipus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1/26(THU) - 2026/12/5(SAT)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50,000원 S 35,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2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최진아
극본 배삼식
작창·음악감독 장서윤

피하려 할수록 가까워지는 운명, 알지 못한 채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소포클레스의 대표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국립창극단 신작
<오이디푸스>로 다시 태어난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려 했던 선택은
예상치 못한 대가로 되돌아오고, 숨겨진 진실은 인물들의 삶을 뒤흔든다.
<리어> <베니스의 상인들> 등 서양 고전을 창극의 언어로 재해석해온
국립창극단. 이번 작품에서는 여성 오이디푸스를 통해 익숙한 기존 서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다. 배삼식 작가의 극본에 장서윤의 작창이 더해져,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 선 인물들의 내면을 소리와 장면으로 선명하게 새긴다.

There is a fate that pulls you closer the harder you fight.
And there is a man walking blindly toward a devastating truth.
Sophocles' masterpiece tragedy 'Oedipus Rex' is reborn as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newest production,
〈Oedipus〉, unfolding a story where choices made to escape
a predetermined path return as unforeseen consequences,
and hidden truths upend the lives of every character.
Following its successful streak of adapting Western classics
like 〈Lear〉 and 〈The Merchant of Venice〉 into the language of
changgeuk, the company now introduces a female Oedipus
to reframe this familiar narrative through a new lens.
Built on playwright Bae Sam-sik's script and amplified
by Jang Seo-yoon's pansori composition, this production vividly
carves the characters' inner turmoil into the music
and staging as they stand before the whirlwind of fate.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2026 송년판소리-소리정담

2026 Year End Pansori-Pansori & Tales

연출·사회 유은선
출연 윤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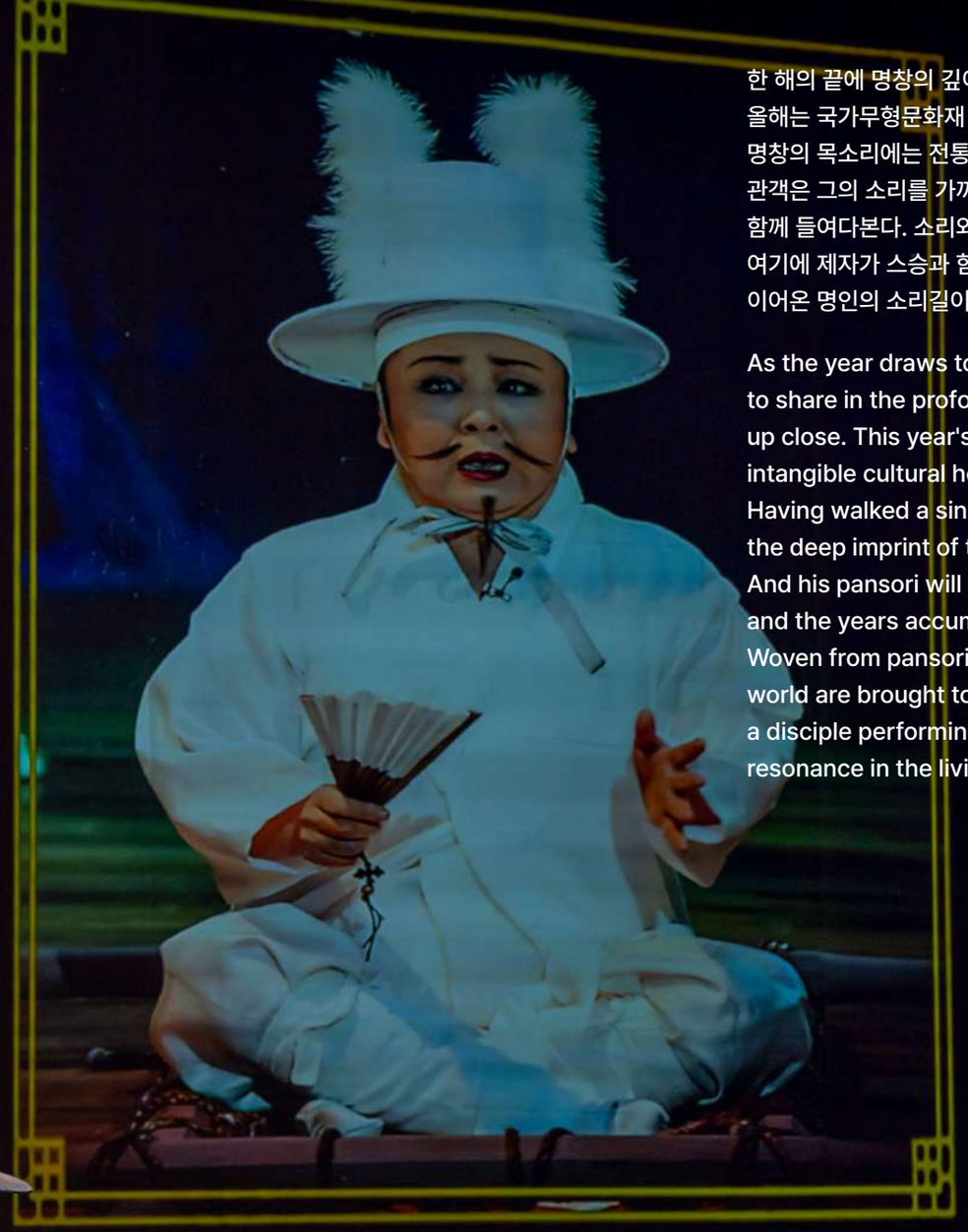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2/26(SAT)
토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9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한 해의 끝에 명창의 깊이 있는 소리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나누는 렉처 콘서트.
올해는 국가무형문화재 '적벽가' 예능보유자 윤진철과 함께한다.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명창의 목소리에는 전통의 깊이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관객은 그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구절마다 쌓인 그의 예술관과 지나온 시간을
함께 들여다본다. 소리와 대담을 오가며 한 인물의 세계가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여기에 제자가 스승과 함께 만들어내는 무대가 더해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명인의 소리길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As the year draws to a close, this lecture-concert offers a rare opportunity to share in the profound artistry and candid life stories of a master singer up close. This year's featured artist is Yun Jun-chul, a nationally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 of 〈Jeokbyeokga〉.
Having walked a single artistic path for decades, the master's voice carries the deep imprint of tradition and the traces of a life fully lived.
And his pansori will lead the audience to look into the artistic philosophy and the years accumulated, passage by passage.
Woven from pansori and candid dialogue, the full dimensions of one artist's world are brought to life. The stage is further enriched by a disciple performing alongside the mentor - leaving a deep and enduring resonance in the living lineage of this master's pansori path.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2026 송년음악회-어질더질
2026 YEAR END CONCERT-THE CLOSING

한 해 동안 국립창극단을 사랑해 준 관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
<2026 송년음악회-어질더질>은 국립창극단 대표 레퍼토리의 주요 음악과 장면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엮어낸 무대다. 깊은 소리와 유쾌한 해학, 배우들의 생생한 존재감이 어우러져 창극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전한다.
한 해 동안 무대를 빛낸 노래와 장면들이 다시 모이고, 익숙한 레퍼토리는 새로운 울림으로 되살아난다. 2026년의 마지막 밤, 웃음과 감동 속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향한 희망과 설렘으로 정미년의 문을 연다.

<2026 YEAR END CONCERT-THE CLOSING> is dedicated to expressing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audiences who have loved and supported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throughout the year.
The concert presents a festive, gala-style performance that weaves together the musical highlights and iconic scenes from the company's signature repertoire. Blending the profound depth of pansori, delightful wit, and the vivid, commanding presence of its performers, the stage showcases the full, diverse charm of changgeuk. The very songs and moments that illuminated the stage throughout the year are reunited, breathing fresh resonance into familiar favorites. On this final night of 2026, join us to look back on the year gone by with laughter and heartfelt emotion - opening the door to 2027 with hope, excitement, and a warm welcome to the Year of the Red Sheep.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2/31(THU)
목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절창VII

PEERLESS PANSORI VII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3/17(WED) - 2027/3/18(THU)
수·목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박인혜
소리꾼 박성우 이나경

판소리의 지금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무대, 국립창극단 <절창>이
일곱 번째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매해 젊은 창자들의 개성과 활기로 색다른 소리를 펼쳐온 <절창>의
이번 주인공은 박성우와 이나경. 폭발적인 힘과 시원한 소리의 박성우,
단단한 소리와 안정적인 호흡의 이나경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역동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적벽가'를 선보인다.
적벽대전을 둘러싼 긴장과 영웅들의 기세, 전쟁 속 인물들의 희비가
두 창자의 소리로 되살아난다. 서로 다른 음색이 맞부딪히고 어우러지며,
판소리의 깊이와 젊은 활력이 숨 쉬는 무대를 펼쳐낸다.

The most intense stage on which to experience pansori in the here and now,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Peerless Pansori〉 returns for its seventh edition. Each year, 〈Peerless Pansori〉 has captivated audiences with the notable individuality and energy of its young singers; this time the spotlight falls on Park Sung-woo and Lee Na-kyung. Park Sung-woo, with his explosive power and refreshing sound, and Lee Na-kyung, with her solid sound and poised breath control, together perform 'Jeokbyeokga', the most dynamic of the five pansori works. The tension surrounding the Battle of Red Cliffs, the prowess of its heroes, and the joys and sorrows of those caught in the midst of war are brought back to life through the two singers' voices.
As their distinct timbres clash and harmonize, they create a stage where the depth of pansori and the vitality of youth breathe as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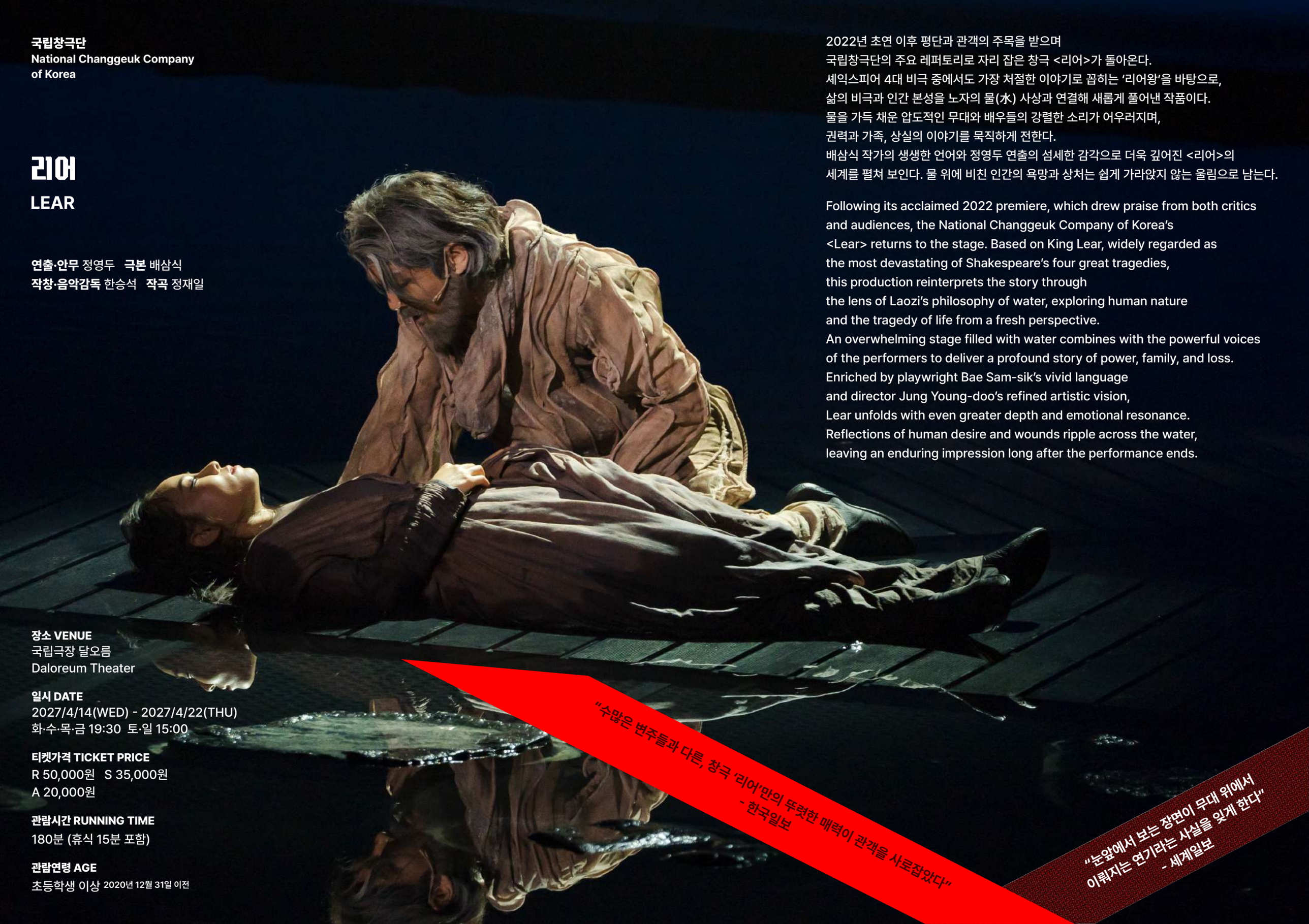
"전통 판소리에 현대적 감각과 참신한 구성을 더했다"
- 국악타임즈

"고전을 비틀어 현재에 다가간다"
- 한국경제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리어
LEAR

연출·안무 정영두 **극본** 배삼식
작창·음악감독 한승석 **작곡** 정재일



2022년 초연 이후 평단과 관객의 주목을 받으며
국립창극단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창극 <리어>가 돌아온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이야기로 꼽히는 '리어왕'을 바탕으로,
삶의 비극과 인간 본성을 노자의 물(水) 사상과 연결해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물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무대와 배우들의 강렬한 소리가 어우러지며,
권력과 가족, 상실의 이야기를 묵직하게 전한다.
배삼식 작가의 생생한 언어와 정영두 연출의 섬세한 감각으로 더욱 깊어진 <리어>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물 위에 비친 인간의 욕망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울림으로 남는다.

Following its acclaimed 2022 premiere, which drew praise from both critics and audiences,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Lear> returns to the stage. Based on King Lear, widely regarded as the most devastating of Shakespeare's four great tragedies, this production reinterprets the story through the lens of Laozi's philosophy of water, exploring human nature and the tragedy of life from a fresh perspective.
An overwhelming stage filled with water combines with the powerful voices of the performers to deliver a profound story of power, family, and loss.
Enriched by playwright Bae Sam-sik's vivid language and director Jung Young-doo's refined artistic vision, Lear unfolds with even greater depth and emotional resonance.
Reflections of human desire and wounds ripple across the water, leaving an enduring impression long after the performance ends.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4/14(WED) - 2027/4/22(THU)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50,000원 S 35,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80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수많은 변주들과 다른, 창극 '리어'만의 뚜렷한 매력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 한국일보

"눈앞에서 보는 장면이 무대 위에서
이뤄지는 연기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
- 세계일보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춘향

PANSORI THEATER CHUNHYANG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6/24(THU) - 2027/6/27(SUN)
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50분 (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연출·극본 요나 김
작창·음악감독 한승석

국립창극단 2027년 신작 <춘향>. 익숙한 사랑 이야기를
새로운 감정의 결을 따라 다시 그려낸다.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을 넘어, 작품 속 인물들이 저마다 품은
그리움과 기다림, 연민과 바람을 섬세하게 들여다본다.
고전은 각자의 마음과 선택이 교차하는 여러 겹의 관계 이야기로 확장된다.
<심청>에서 고전을 강렬하게 해석한 요나 김은 이번에도 원작의 구조를
새롭게 흔든다. 그 안에서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랑의 얼굴들을
무대 위에 불러낸다. 한승석의 음악은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인물의 감정을 촘촘히 엮고, <춘향>의 세계를 밀도 있게 채운다.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2027 production, 〈Pansori Theater Chunhyang〉, reimagines a familiar love story through a fresh emotional lens. Beyond the romance between Mongryong and Chunhyang, the work subtly explores the longing and the waiting, the compassion and the yearning that define each character. From there, this classic expands into a multi-layered narrative of relationships, where hearts and choices intersect.
Yona Kim, who previously offered a daring reinterpretation in 〈Pansori Theater Simcheong〉, restructures the original once more, summoning onto the stage the many faces of love that linger long in the heart. Han Seung-seok's music, deeply rooted in tradition, intricately weaves together the characters' emotions, imbuing the world of 〈Pansori Theater Chunhyang〉 with profound resonance.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9/19, 10/24, 11/14(SAT)
2027/3/20, 4/24, 5/22, 6/19(SAT)
토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AGE
·2026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2027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완창판소리

The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해설·사회 유은선
명창 조주선(2026/9/19)
이광복(2026/10/24)
서진희(2026/11/14)
나윤영(2027/3/20)
김세미(2027/4/24)
정순임(2027/5/22)
김준수(2027/6/19)

1984년 시작된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한 명의 소리꾼이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 보이는 무대다.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적벽가를 당대 명창들의 소리로 만나는 시간은 묵직한 감동을 남긴다. 고수의 북장단과 추임새에 기대어 짧게는 세 시간, 길게는 여덟아홉 시간 이어지는 완창은 소리꾼이 평생 다져온 내공과 삶의 시간을 온전히 드러낸다. 여기에 명창의 예술 세계와 작품을 풀어내는 해설이 더해져, 판소리 한 바탕의 깊이와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무대. 오랜 전통의 힘을 가장 단단하게 만나는 자리다.

〈The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inaugurated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n 1984, presents a single singer performing one entire pansori work from beginning to end. The chance to hear all five pansori — Chunhyangga, Simcheongga, Heungboga, Sugungga, and Jeokbyeokga — in complete form, performed by the leading masters of the day, is a profoundly moving experience. Supported by the drummer's rhythmic beats and chuimsae (exclamations of encouragement), a complete performance lasts anywhere from three to nine hours, fully revealing the artistry that the singer has cultivated over a lifetime. With scholarly commentary illuminating each singer's artistic world and the work itself, audiences can immerse themselves fully in the depth and allure of each pansori — the most enduring encounter with the lasting power of a centuries-old tradition.

더블빌 : 시나위

2026 안무가 프로젝트

향연

2027 축제

미인

파이브 바이브

겹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on a performance title to view its page.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더블빌 : 시나위

DOUBLE BILL:SINAWI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0/8(THU) - 2026/10/11(SUN)
목 19:30 금·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시나위 I <살풀이 生>
안무 배정혜
작곡·음악감독 원일
무대디자인 김종석
의상디자인 배경술

시나위 II <AHRA>
안무 배진호
작곡·음악감독 유재영 정도운
무대디자인 김종석
의상디자인 최인숙

각 세대를 대표하는 두 안무가가 서로 다른 감각과 스타일로
한국 전통음악 '시나위'를 춤으로 풀어낸다. '살(煞)'을 풀고, 엮으며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기원하는 배정혜 안무의 <살풀이 生>과 아리랑 속
'한(恨)'을 오늘의 신체 언어로 재해석해 극치의 아름다움으로 피워낼
배진호 안무의 <AHRA>를 더블빌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립무용단 최초로 무용수의 몸을 세대별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원숙한 호흡과 도전적인 감각이 각기 다른 결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통의 미학과 동시대적인 감각이 교차하는 이번 신작은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Two visionary choreographers, both representing their generations, come together to interpret the traditional Korean musical form 'sinawi' through their unique creative styles and distinct sensibilities. 〈Double Bill〉 features Bae Jeong-hye's 〈Life (生)〉, which dispels and interweaves destructive spiritual energies (sal) into a ritualistic prayer for renewal and peace, alongside Bae Jin-ho's 〈AHRA〉, an evocative work that translates the deep-seated sorrow (han) of Arirang into a modern physical language of ultimate beauty.
In a pioneering first for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the performance divides its cast by generation - giving audiences a front-row seat to the fascinating dialogue between seasoned mastery and bold experimentation extending into different artistic textures. Where timeless tradition intersects with a contemporary edge, this new production sets a striking new paradigm for creative Korean dance.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2026 안무가 프로젝트

Choreographer Project 2026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1/6(FRI) - 2026/11/8(SUN)
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이이슬 송윤주 선승훈
출연 2026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

한국무용계를 이끌 차세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2026년 국립무용단이 주목한 세 명의 안무가 이이슬, 송윤주, 선승훈과
지난 2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0명의 차세대 무용수(2026년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가 만나 뜨거운 에너지로 무대를 채운다.
젊은 예술가들의 재기발랄한 실험과 도전, 반짝이는 상상력은
한국춤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세 명의 안무가가 각기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펼쳐내는 세 편의 무대는
관객에게 신선한 자극을,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을 불어넣는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안무가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기대해도 좋다.

A stage to discover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poised to lead the future of Korean dance.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spotlights three choreographers - Lee Ei-sul, Song Yun-joo, Seon Seung-hoon - together with twenty emerging dancers selected through a highly competitive audition last February.
As the 2026 Young Artistic Fellows, these dancers bring raw, vibrant energy to the stage. Their spirited experimentation, daring challenges, and sparkling imagination offer a compelling glimpse into where Korean dance is headed.
Three distinct works, each shaped by a unique perspective and sensibility, bring fresh inspiration for audiences while opening new possibilities and vital energy for the artists themselves.
A deeply distinctive showcase - and an unmissable first look at the voices that will shape Korean dance for years to come.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2/19(SAT) - 2026/12/26(SAT)
화·수·목 19:30 금·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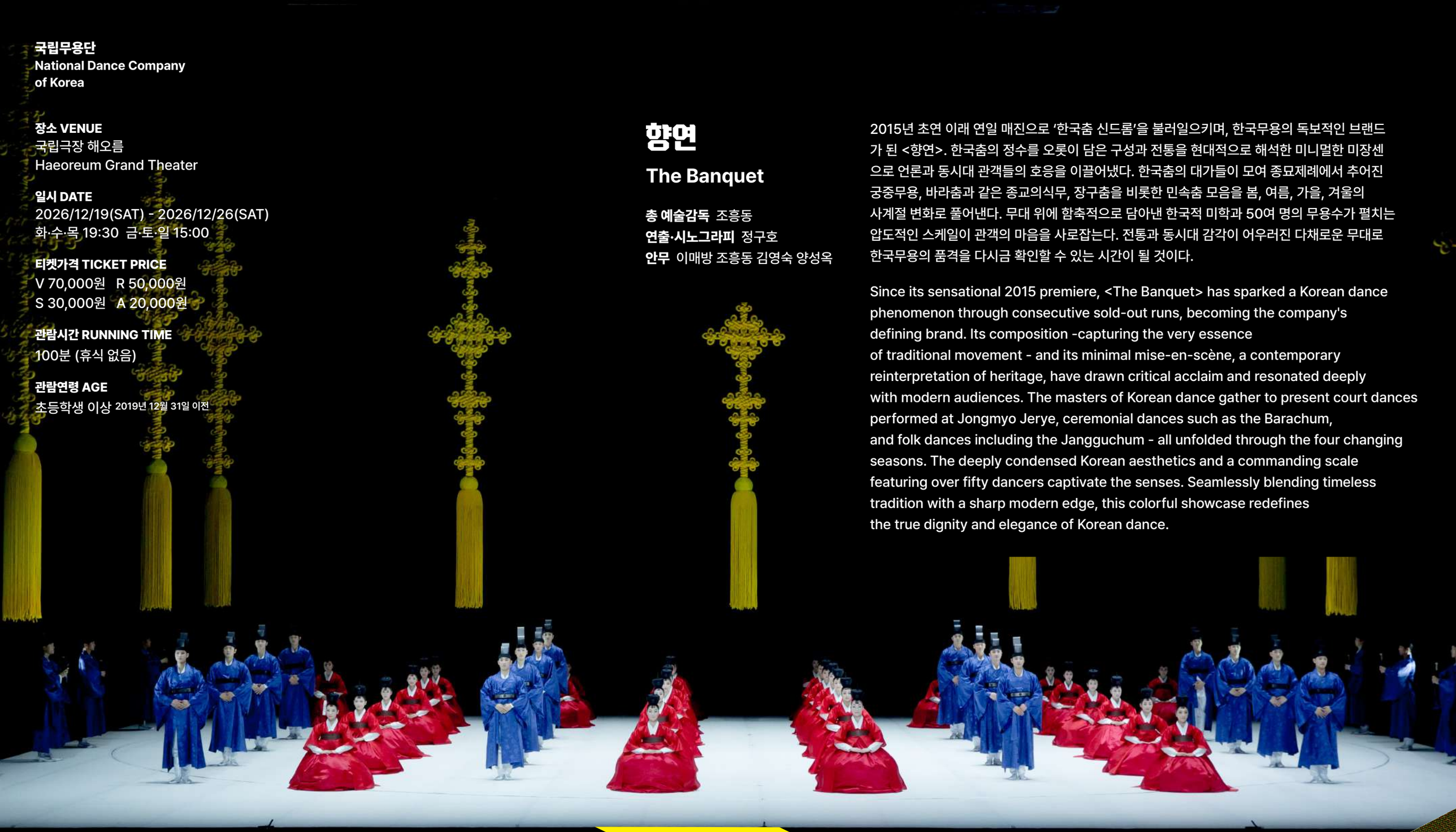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향연
The Banquet

총 예술감독 조흥동
연출·시노그라피 정구호
안무 이매방 조흥동 김영숙 양성옥

2015년 초연 이래 연일 매진으로 '한국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한국무용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된 <향연>. 한국춤의 정수를 오롯이 담은 구성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미니멀한 미장센으로 언론과 동시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국춤의 대가들이 모여 종묘제례에서 추어진 궁중무용, 바라춤과 같은 종교의식무, 장구춤을 비롯한 민속춤 모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변화로 풀어낸다. 무대 위에 함축적으로 담아낸 한국적 미학과 50여 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압도적인 스케일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전통과 동시대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한국무용의 품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Since its sensational 2015 premiere, <The Banquet> has sparked a Korean dance phenomenon through consecutive sold-out runs, becoming the company's defining brand. Its composition -capturing the very essence of traditional movement - and its minimal mise-en-scène, a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heritage, have drawn critical acclaim and resonated deeply with modern audiences. The masters of Korean dance gather to present court dances performed at Jongmyo Jerye, ceremonial dances such as the Barachum, and folk dances including the Jangguchum - all unfolded through the four changing seasons. The deeply condensed Korean aesthetics and a commanding scale featuring over fifty dancers captivate the senses. Seamlessly blending timeless tradition with a sharp modern edge, this colorful showcase redefines the true dignity and elegance of Korean dance.



"매진, 매진 또 매진... 한폭의 명화처럼 펼쳐낸 한국무용"
- 조선일보

"놀랄 만큼 모던한 한국춤 <향연>의 이유 있는 흥행"
- 중앙일보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2027 축제
Festival 2027

2027년 정미년, 붉은 양의 해를 국립무용단의 한국춤 잔치로 시작한다.
<축제> 시리즈는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설 명절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한국춤 레퍼토리를 한 무대에 모아 관객의 새해 복을 기원하고, 축원을 전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에
신명나는 한판을 즐기고, 새해를 더욱 즐겁게 시작하고 싶다면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이다.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opens the year 2027,
the Year of the Red Sheep, with a celebration of Korean dance.
The 〈Festival〉 series has been cementing its status as the signature show
of the Lunar New Year season, having sold out every performance.
A wide selection of Korean dance repertoire will be presented
to wish audiences a prosperous new year, bringing blessings and joy
to all generations. A must-see for everyone looking to ring in the new year
in high spirits with the whole family.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7/2/4(THU) - 2027/2/9(TUE)
목·금 19:30 토·일·화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6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미인
Beauty

연출 양정웅
안무 정보경
의상·오브제디자인 서영희
음악 장영규

2025년 초연 당시 조기 매진을 기록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급부상한 <미인>.
각 분야 정상급 창작진과 국립무용단의 여성 무용수가 한국춤에 내재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고, 정교한 몸짓과 강렬한 에너지의 대비를 담아내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부채춤, 강강술래, 탈춤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움직임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전통적 미(美)와 현대적 감성을 넘나들며 강렬한 무대를 펼쳐낸다. 압도적인 장면과 움직임 속에서
한국춤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무대다.

<Beauty> sold out early at its 2025 world premiere, swiftly establishing itself
as a signature work of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Top-tier creators and the company's female dancers came together
to elevate the aesthetic values inherent in Korean dance - capturing the interplay
between precise movement and intense energy in a work
that earned widespread acclaim. Through a contemporary lens, the performance
reimagines the vibrant movements of traditional Korean dance, including the fan dance,
Ganggangsullae, and mask dance, bridging traditional beauty and modern emotion
to deliver a commanding stage experience. A production where the true allure
of Korean dance is discovered amidst breathtaking scenes and movement.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4/1(THU) - 2027/4/4(SUN)
목·금 19:30 토·일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6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압도적 한국춤의 향연, 한국춤의 새로운 미학 제시"
-뉴시스

"눈과 귀가 즐거운 한국무용"
-이데일리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파이브 바이브

Five Vibe

안무·연출 예효승
콘셉트·구성 박진영
음악감독 송광호
무대디자인 박은혜
의상디자인 최원

파격적인 구성과 강렬한 에너지로 주목받은 <파이브 바이브>.
벨기에 '레 발레 세드라베' 최초 한국인 무용수이자 현대무용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활약 중인 예효승이 안무·연출한다. 한국춤에 내재된 다섯 가지 감각 '선·장단·숨·흥·시간'을 예효승의 언어와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한국 남성춤 특유의 절제된 에너지, 낮고 깊은 중심 그리고 고유의 신체성에 주목해 다채로운 매력을 펼쳐 보인다. 전통 장단과 EDM·디제잉이 결합된 사운드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증폭시키며 무대에 생동감을 더한다. 다시 한 번 뜨겁게 진동하는 남성들의 한국춤에 주목해도 좋다.

<Five Vibe> draws attention for its bold composition and electrifying energy.
The work is choreographed and directed by Ye Hyo-seung - the first Korean dancer to join Belgium's Les Ballets C de la B and a singular presence in the contemporary dance world. Rendered in Ye's own artistic language, it reinterprets five sensory qualities inherent in Korean dance: line, rhythm, breath, exhilaration, and time. Foregrounding the restrained energy, low, grounded center, and distinctive physicality unique to Korean male dance, the production reveals its multifaceted appeal. A soundscape blending traditional rhythm with EDM and DJing amplifies the dancers' movement, bringing vibrant energy to the stage.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4/1(THU) - 2027/4/4(SUN)
목·금 19:30 |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6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겹
Layers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6/3(THU) - 2027/6/6(SUN)
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6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허용순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재독 안무가 허용순과 국립무용단의 첫 협업 신작 <겹>. 서로 다른 춤의 언어와 감정, 여러 세대가 쌓아 온 시간이 포개지는 '겹(layer)'의 개념을 춤으로 풀어내며, 입체적인 한국춤의 세계를 예고한다. 각 장은 고유한 이야기와 색채를 간직한 채 이어지고, 유영하듯 흐르는 움직임은 교차하고 겹쳐지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발레와 컨템포러리를 넘나드는 허용순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국립무용단이 다져 온 한국춤의 깊은 호흡과 만난다.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과 몸에 새겨진 저마다의 이야기가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춤으로 펼쳐진다.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쌓여 삶을 이루듯, 춤으로 쌓아 올린 <겹>은 관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한다.

<Layers> is a new production marking the first collaboration between the Korea National Dance Company and Hue Young-soon, a Germany-based choreographer who has carved out her own distinctive artistic world on the international stage. Exploring the concept of "layer"—where different languages of dance, emotions, and the accumulated experiences of generations overlap—the work opens up a multidimensional world of Korean dance. Each section unfolds with its own story and distinct character, while movements flow as if floating, intersecting and overlapping to create new meanings. Hue's fluid and dynamic movement vocabulary, moving freely between ballet and contemporary dance, meets the deep, resonant breath of Korean dance cultivated by the Korea National Dance Company. Emotions that emerge through human relationships and the individual stories inscribed in each body come to life through choreography that is at once powerful and delicate. Just as countless experiences and moments accumulate to shape a life, <Layers> builds its own layers through dance, offering audiences a fresh source of inspiration.

2026 작곡가 프로젝트

관현악시리즈 I 협연의 연대기

추석엔 국악가요

관현악시리즈 II 2026 디스커버리

2026 윈터 콘서트

2027 신년 음악회

관현악시리즈 III 음악 오디세이 : 거상

어린이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애주가

관현악시리즈 IV 신보(新譜)

정오의 음악회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on a performance title to view its page.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2026 작곡가 프로젝트

2026 Composer Project

지휘 김성국
위촉 작곡 김산하 박다은 박준석 이재준 정지윤

공개 모집과 시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곡가 5인의 신작을 통해 참신한 상상력과
우리 음악의 멋진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 국악관현악을 향한 열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리딩과 멘토링을 거쳐 탄생한 5개 작품에는 작곡가 5인의 다양한 이야기와
저마다 마주하는 풍경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김성국 지휘자의 탁월하고도 깊이 있는 해석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밀도 높은 연주가 5개 작품을 품은 서로 다른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진심 어린 의지가 가득한
<2026 작곡가 프로젝트>로 2026-2027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첫 무대를 패기 있게 연다.

<2026 The Composer Project> opens the 2026-2027 National Repertory Season with an ambitious mission of discovering the next generation of gugak orchestral music. Through an open call, five talented composers have been selected to bring their fresh imagination to the stage, each presenting a work with its own distinct story and landscape. These pieces - the culmination of six months of dedicated readings and mentorship - mark a new chapter for Korean music. Brought to life by conductor Kim Sung-kook's brilliantly nuanced interpretation and the refined artistry of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this performance promises to immerse audiences in five distinct musical worlds.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8/21(FRI)
금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물결을 여는 뜻깊은 시간"
- 뉴시스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 I

협연의 연대기

Chronicles of Concerto

지휘 박천지

국악관현악의 반세기 역사를 관통하는 협연의 대서사시. 197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서 확장과 도약을 이루었던 국악관현악과 협연의 역사를 함께 조망하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온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협연곡으로 국악관현악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예술적 성취를 담아 국악기의 가능성을 넓혀온 협연자들의 깊은 내공을 확인한다. 전통의 깊이와 함께 치열한 음악적 실험과 도전이 가득했던 <협연의 연대기>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국악관현악의 조화로운 음악 세계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Chronicles of Concerto> is an epic narrative traversing a half-century of gugak orchestral history. This special stage features a panoramic look at the evolution of the gugak orchestra and its concertos, which expanded and flourished amid waves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from the 1970s through the 2020s and beyond. By revisiting iconic concertos that defined each era, the performance illuminates the journey of the gugak orchestra and showcases the profound artistry of soloists who have pushed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instruments. A unique journey through time - filled with deep tradition, fierce experimentation, and bold musical challenges - this is an invitation into the vast musical world where the past and future of the gugak orchestra m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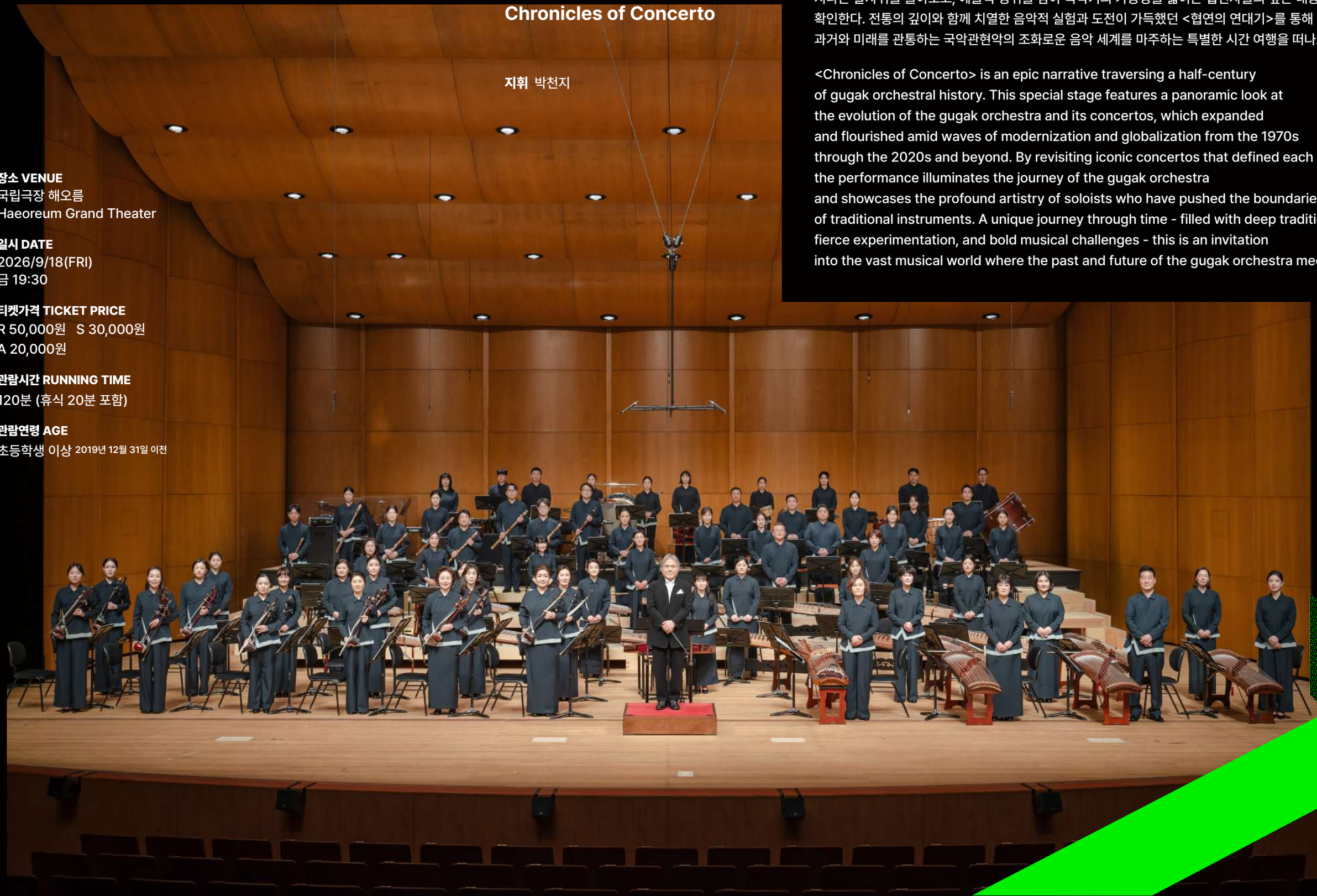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9/18(FRI)
금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20분 (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9/24(THU)-2026/9/25(FRI)
목·금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5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추석엔 국악가요

Go Gugak this Chuseok

지휘 원영석

전통의 멋을 담은 지역 민요부터 모두에게 익숙한 가요까지.
고향의 따뜻함과 명절의 흥겨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추석 공연이 하늘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남도, 서도,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민요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가요로 꽉꽉 채워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주들까지 온 가족에게 추석 명절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유쾌함 가득한 원영석 지휘자의 해석을 더해 국악과 가요의 만남으로 차려내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넉넉한 추석 잔치에 모두 함께 어깨 들썩이며 하나 되는 행복을 노래해 보자.

Celebrate Chuseok with a special performance at the Haneul Round Theater, featuring
a beautiful blend of traditional regional folk songs and beloved popular melodies.
Filled with the warmth of home and the festive spirit of the holiday, this concert highlights
folk traditions from the southern, western, and Gyeonggi regions alongside timeless songs
cherished across generations. Offering something for everyone, this stage promises
to create cherished family memories. Under the vibrant direction
of conductor Won Young-seok,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brings together gugak
and contemporary popular song for a joyful celebration of Chuseok - a moment where
all can come together.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 II

2026 디스커버리

2026 Discovery

지휘 홍석원

클래식계 젊은 거장 홍석원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새로운 해석과 연주로 특별한 음악 여정을 펼쳐낸다. 정교한 분석과 통찰력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홍석원 지휘자의 깊이 있는 미학 세계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유연하고 독창적인 음색이 만나, 이 시대 국악관현악이 구현할 수 있는 예술적 성취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대다. 전통의 선율 속에 숨겨진 현대적 변주와 입체적인 화성을 통해 우리 음악의 근원적인 아름다움과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눈부신 순간이 이어진다. 정상급 지휘자와 악단이 치열하게 조율하며 빚어내는 소리는 관객의 마음을 깊은 울림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Hong Seok-won, a young master of the classical repertoire, joins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for a program of fresh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Grounded in close analysis and assured leadership, the conductor's aesthetic meets the orchestra's supple, distinctive timbre to reach the height of what Korean orchestral music can achieve today. Through contemporary variation and the layered harmonies latent in traditional melody, the program uncovers both the essential beauty of this music and a value that endures across the ages. As conductor and orchestra attune closely to one another, the sound they forge awaits you — and lingers long after the final note.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1/25(WED)
수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8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2026 윈터 콘서트
2026 Winter Concert

지휘 백윤학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2/11(FRI)
금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9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우리 음악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나누는 최고의 선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송년 대표 브랜드 <윈터 콘서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을 만난다. 음악과 하나 되어 무대를 압도하는,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과 함께 국악관현악 대표 악곡부터 캐럴과 영화 음악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선곡으로 겨울밤을 환히 밝힌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올라 동서양 악기가 조화롭게 전하는 따뜻하고도 웅장한 선율로 연말의 아쉬움을 채워보자. 숨 가쁘게 달려온 세밑,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올해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장식하는 무대다.

Sharing a warm and joyful year end spirit through Korean music,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s signature holiday brand, the <Winter Concert>, is the best seasonal gift. This year, the event returns again. Alongside Baek Yoon-hak - the 'dancing conductor' who commands the stage with unparalleled musical presence - with the program traverses genre boundaries, from popular gugak orchestral works to Christmas carols and film scores, beautifully illuminating the winter night. The rich and majestic gugak melodies of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are joined by the Seoul Festa Philharmonic Orchestra for a unique convergence of Eastern and Western instruments, offering heartfelt comfort as the season draws to a close. A perfect stage to fill the final days of a busy year with beautiful music in the company of those who matter most.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2027 신년 음악회

New Year's Concert

지휘 박천지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1/8(FRI)
금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10분 (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새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7 신년 음악회>.
국악관현악의 대표 작품부터 대중적인 협연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구성으로 격조 높은 감동과 뜨거운 신명을 함께 전한다.
1부에서는 전통과 품격의 깊이를 담은 국악관현악의 정수를 선보이며,
2부에서는 익숙한 음악에 우리 가락을 더한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무대를 펼쳐낸다.
따뜻한 불의 기운을 품은 2027년 붉은 양의 해, 전통의 깊은 뿌리 위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7 신년 음악회>와 함께 뜻깊은 새해를 맞이해보자.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s <New Year's Concert> opens the year with wishes of peace and well-being for all. With a rich program spanning signature Korean orchestral works and beloved collaborations, it offers both refined emotion and fervent excitement. In the first half, the orchestra presents the essence of Korean orchestral music, rich with the depth and dignity of tradition. In the second half, a familiar program that layers Korean melody onto well-known music unfolds in a spirited performance.
In 2027 — the Year of the Red Sheep, brimming with the warm energy of fire — welcome a meaningful new year with a concert that sets a contemporary sensibility atop the deep roots of tradition.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03/19(FRI)
금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8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관현악시리즈 III

음악 오디세이: 거상

Music Odyssey: The Great Merchant

지휘 박상후

2024년 온라인 게임 '천하제일상 거상'과 협업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3년 만에 다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 20년 넘게 한국 전통문화와 역사를 담아 국내외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천하제일상 거상'의 세계관에 국악관현악의 색을 입혀 우리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장 시킨다. 이번 협업 무대에서는 실제 온라인 게임에 적용될 새로운 음악을 창작해 국악관현악 공연으로 초연하고, 온라인 이용자와 관객의 사전 및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Three years after the acclaimed 2024 collaboration,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reunites with the online game The Great Merchant to create lasting cultural content. Beloved globally for its deep roots in Korean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The Great Merchant now finds its world enriched by the distinct sounds of the gugak orchestra - a partnership that broadens the possibilities of Korean cultural content. The 2027 collaboration presents brand-new music crafted for the game, premiering the works as a gugak orchestral concert. Adding an engaging interactive dimension, audiences - both online and in the concert hall -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dvance and on-site voting to select the ultimate winning piece.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Finding Harmony, Finding Mama

작 구도윤
연출·작창 박인혜
작곡·음악감독 이고운
미술감독 류지연

2025년 초연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어린이 국악 판타지 <신나락 만나락>이
2027년 다시 한번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만난다. 세상에서 홀로 노래하는 아이 선율이가
친구 오물이와 함께 엄마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따뜻하게 펼쳐진다.
늪에서 마주한 '아쟁', 화산에서 발견한 '거문고', 악기나무 숲에서 만난 다양한 국악기와의 연주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조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한다. 여기에 상상력 넘치는 무대와 살아 움직이듯
노래하고 연기하는 인형이 몰입감을 더해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Finding Harmony, Finding Mama〉, a children's Korean music fantasy beloved since its 2025 premiere, returns to delight children and family audiences once more in 2027. The story follows Seonyul, a young girl who feels alone in the world, as she embarks on a courageous journey alongside her friend, Omul, in search of her mother. This quest transcends reality, carrying the protagonists between the ordinary world and a realm of pure fantasy. Along her path, Seonyul encounters the ajaeng in a swamp, the geomungo at a volcano, and other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in the forest of instrument trees. Through these magical encounters, Seonyul discovers the profound value of harmony and the importance of living together in concert. The production is brought to life through imaginative staging and exquisitely crafted puppets that sing and move with lifelike grace. The result is a deeply immersive and truly special experience for the whole family.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7/4/22(THU) - 2027/5/5(WED)
화·수·목·금 11:00 토·일 14:00
단, 5/5(수) 11:00,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6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36개월 이상

"어린 관객을 향해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발현된 수작"
- 이데일리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문화광장
Cultural Square

일시 DATE
2027/5/29(SAT) - 2027/5/30(SUN)
토·일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무료

관람시간 RUNNING TIME
8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전체 연령

애주가
Songs for Drinkers

지휘 원영석

자연을 벗 삼아 술 한 잔과 함께 운치를 즐기던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애주가>.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2024년 초연 이후 3년 만에 다시 남산 자락에서 풍류객을 맞이한다. 국악과 우리 술이 색다르게 어우러진 낭만이 흐르는 무대가 2027년에도 한 상 가득 펼쳐진다. 술을 빚어내듯 흥취 가득한 선율과 장단으로 무대와 관객을 이어주는 원영석의 지휘는 초여름의 정취에 흥겨움을 더한다. 술 한 잔에 담은 우리 음악이 메마른 일상에 촉촉한 위로와 즐거움을 건네며, 흥과 풍류로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Songs for Drinkers〉 offer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pungryu — the refined leisure culture of old scholars who befriended nature and savored its pleasures over a cup of Korean wine. Returning to the foot of Namsan three years after its well-received 2024 premiere, the production welcomes audiences once more in 2027 with a stage where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Korean wine flow together in singular harmony. Conductor Won Young-seok joins performers and audience through melodies and rhythms as effervescent as wine in mid-ferment, lending a festive air to the early-summer evening. In the end, music poured like wine into a waiting cup brings solace and delight to the parched routines of daily life — a rare moment in which all become one through revelry and pungryu.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 IV
신보(新譜)
The New Score

지휘 김성국 **위촉 작곡** 최지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알리는 관현악시리즈 <신보(新譜)>.
전통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우리 음악의 미래를 선도해 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와 깊이 있는 예술성을 담아낸 무대다. 악단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최지혜 작곡가가 오직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위해 빚어낸 '신보'를 단원들의
협연으로 완성한다. 각 협연 악기 본연의 매력과 어우러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완벽한 하모니는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창작국악의 정수와 악단 고유의 예술적 깊이를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The inaugural Orchestra Series, 〈The New Score〉, marks a fresh artistic
challenge for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The stage captures the singular
musical world and profound artistry the orchestra has built over years
at the forefront of Korean music, reinterpreting tradition through a contemporary lens.
The 'new scores' — crafted exclusively for the orchestra by composer Choi Ji-hye,
who brings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ensemble and a wealth of experience
— are brought fully to life through the members' collaborative performance.
The flawless harmony of the whole, interwoven with the inherent charm
of each solo instrument, vividly reveals both the delicate yet magnificent essence
of creative Korean music and the orchestra's distinctive artistic depth.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6/11(FRI)
금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9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정오의 음악회
Midday Concert

지휘 박경현(2026/10/15)
최동호(2026/11/5)
문형희(2026/12/3)
해설 이금희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0/15, 11/5, 12/3(THU)
2027/3/4, 4/8, 5/20(THU)
목 11: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2026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2027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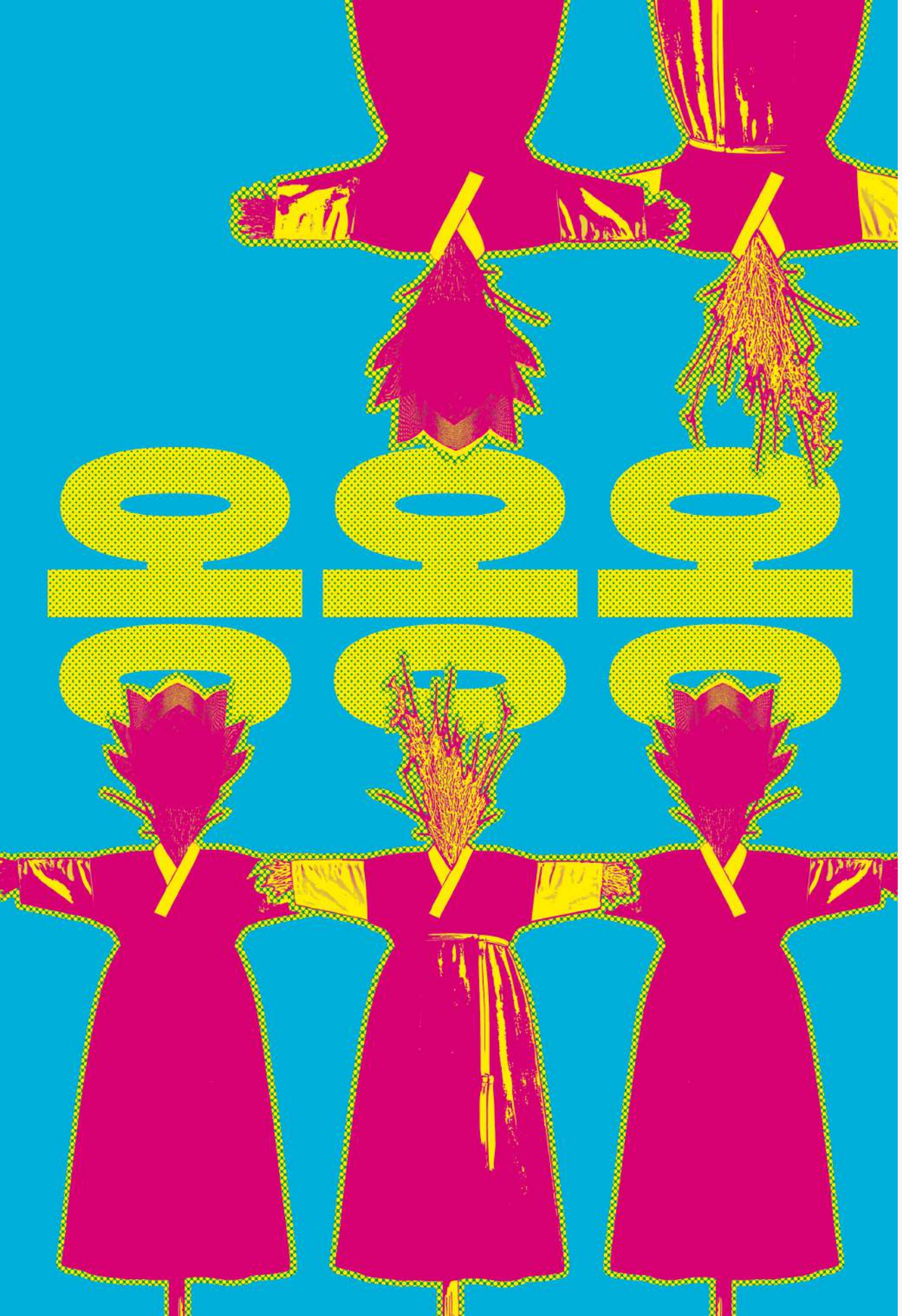
정오의 햇살처럼 따스함이 스며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적인 마티네 콘서트.
편안하고도 유쾌한 이금희 아나운서의 진행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다채로운 음악이 정오의 시간을 화사하게 채운다. 매회 새로운 주제와 스타 협연자가 함께하며 국악을 친근하게 풀어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남산의 푸른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선율은 메마른 일상에 감성을 더한다. 관람 후 소소한 간식과 함께 즐기는 오후의 여유까지.
지친 일상에 다정한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s signature matinée concert brings warmth as radiant as the midday sun. Hosted by the warm and engaging broadcaster Lee Keum-hee, the performance features an eclectic repertoire that brightens the afternoon in the most colorful way. Each edition introduces a fresh theme and star soloists, presenting gugak in an approachable and enjoyable way for everyone. Stepping away from the bustle of the city and into the lush greenery of Namsan, these traditional melodies resonate through nature and add a touch of emotional richness to everyday life. After the concert, the afternoon unfolds at leisure over light refreshments - a refreshing boost for your daily routine.

- 옹옹옹
- 콘 : 라마끼엔의 이야기
- 지단 왕자의 복수
- 독갑이댁 수레노래
- 희경루방회도
- 해녀탐정 홍설록
- 백만사
- NT Live 서쪽 나라의 멋쟁이
- NT Live 모두가 나의 아들
- NT Live 더 피프스 스텝
- 2026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 마당놀이 춘풍처도 온다
-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 2027 함께, 봄
- NT Live 진지함의 중요성
- NT Live 위험한 관계
- 카운트 나인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on a performance title to view its page.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옹옹옹
Mr. ONG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9/3(THU) - 2026/9/6(SUN)
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익숙한 고전 소설 '옹고집전'이 음악극 <옹옹옹>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거머쥔 강훈구 연출과 서동민 작가가
'옹고집전'을 유쾌하게 비튼다. 가짜 옹고집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가짜'가 되어 세상 밖으로 밀려난 진짜 옹고집.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편견과 맞서 싸우는 옹고집의 수난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삶의 기준들을 능청스럽게 뒤집어 선보인다.
전통의 문법을 비틀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사운드가
새로운 차원의 음악극을 완성한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 이제껏 믿어온
기준이 무너지는 자리. 우리는 과연 '진짜'로 살아가고 있을까.

The familiar classic tale 'Onggojipjeon' is reborn
as the innovative musical theater piece <Mr. ONG>.
Director Kang Hoon-gu — winner of the Best Young Theater
Award at the 61st Baeksang Awards — and writer Seo Dong-min
give the old tale a playful twist. With the arrival of a counterfeit
Onggojip, the protagonist, the real Onggojip, is instantly
branded the 'fake' and cast out into the world. His ordeal
of battling every prejudice to prove his own existence wittily
overturns the life standards we have long taken for granted.
Defined by a free-ranging sound that defies traditional
conventions and crosses genre boundaries,
the work introduces a new dimension to musical theater.
At the intersection where the lines between real and fake collapse
and long-held certainties dissolve, the play poses a profound
question: are we truly living as our 'true' selves?

극본 서동민
연출 강훈구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태국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
Fine Arts Department: Royal Dance Troupe

콘 :
라마끼엔의 이야기

Khon (The masked play) :
The story Ramakien (ramayana)

기획·구성 태국 문화예술부
전승자·예술감독 빠꼰 뽄삐숫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태국의 가면극 '콘(Khon)'.
그중에서도 고대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를 태국식으로 해석한 『라마끼엔』을 주제로 하는
서사 가면극 <콘 : 라마끼엔의 이야기>가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한국 관객을 만난다.
태국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연극과 음악은 물론 회화, 조각, 공예 요소까지
집약된 우아하고 복합적인 공연예술이다. 작품은 「시작」, 「시타의 납치」, 「라마와 토사칸의 전투」,
「아요디야로의 귀환」 네 가지 장면을 통해 라마와 토사칸의 대립과 여정을 그려낸다.
왕실의 중요한 의식에서 공연되었던 '콘'만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Khon, Thailand's masked dance-drama, is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ased on the Ramakien — the Thai interpretation of the ancient Hindu epic Ramayana — this narrative masked play meets Korean audiences at the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Presented by the Fine Arts Department of Thailand, the work is an elegant, multilayered performing art that integrates theater and music with painting, sculpture, and craft. Across four scenes — 〈The Beginning〉, 〈The Abduction of Sita〉, 〈The Battle of Rama and Tosakan〉, and 〈The Return to Ayodhya〉— it traces the conflict and journey of Rama and Tosakan. The stage offers a chance to experience the overwhelming beauty unique to Khon, once performed at the most important royal ceremonies.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9/4(FRI) - 2026/9/5(SAT)
금 19:30 토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 Fine Arts Department: Royal Dance Troupe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상하이 경극원
Shanghai Jingju Theater Company

지단 왕자의 복수
The Revenge of Prince Zi Dan

제작 상하이 경극원
극작가 펑 강
감독 스 위쿤
주연 푸 시루



상하이 경극원의 대표 레퍼토리 <지단 왕자의 복수>가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무대에 오른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극으로 재창작한 작품.
2005년 덴마크 '햄릿 서머 시어터 페스티벌' 초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었으며,
2011년 제65회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 '헤럴드 엔젤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아왔다.
원작의 배경을 중국 고대 도시 '치정'으로 옮겨와, 전통 경극의 노래와 낭송, 특유의 움직임과 기예를
바탕으로 서양의 서사와 동양의 정서를 독창적으로 엮어냈다. 경극 고유의 미학과 표현 방식을
깊이 있게 경험할 무대가 될 것이다.

The Shanghai Jingju Theatre Company's signature work, 〈The Revenge of Prince Zi Dan〉,
takes the stage at the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This acclaimed production reimagines Shakespeare's classic 〈Hamlet〉 as Peking opera,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eginning with an invitation to Denmark's 'Hamlet Summer Theatre Festival' in 2005,
the production has toured extensively worldwide. It has garnered widespread international
acclaim, notably winning the prestigious 'Herald Angel Award' at the 65th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in 2011. Transporting the original's setting to the ancient Chinese city
of 'Chicheng', the production draws on the singing and recitation of traditional Peking opera,
along with its distinctive movement and artistry, to weave Western narrative
and Eastern sensibility together in a strikingly original way.
It promises to be a profound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unique aesthetics
and expressive power of traditional Peking opera.

"이 작품은 중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사절로서 경극 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Hong Man》 Magazine

"의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보고 듣게 만드는 걸작"
-《The Guardian》 UK

© Shanghai Jingju Theater Company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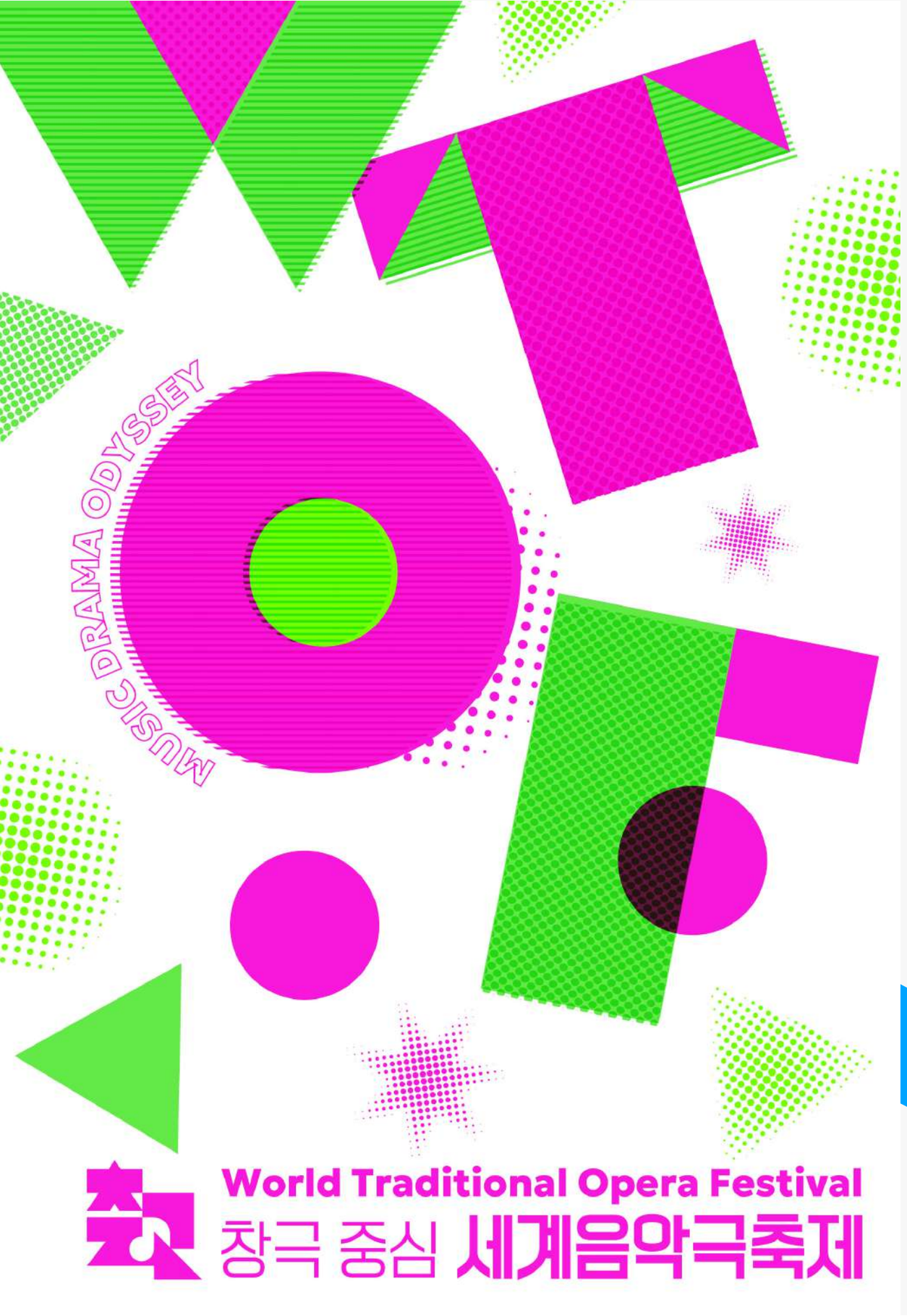
일시 DATE
2026/9/12(SAT) - 2026/9/13(SUN)
토·일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50,000원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45분 (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독갑이댁 수레노래
The Goblin Lady's Cart Song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국립민속국악원
Namwon National Gugak Center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9/12(SAT) - 2026/9/13(SUN)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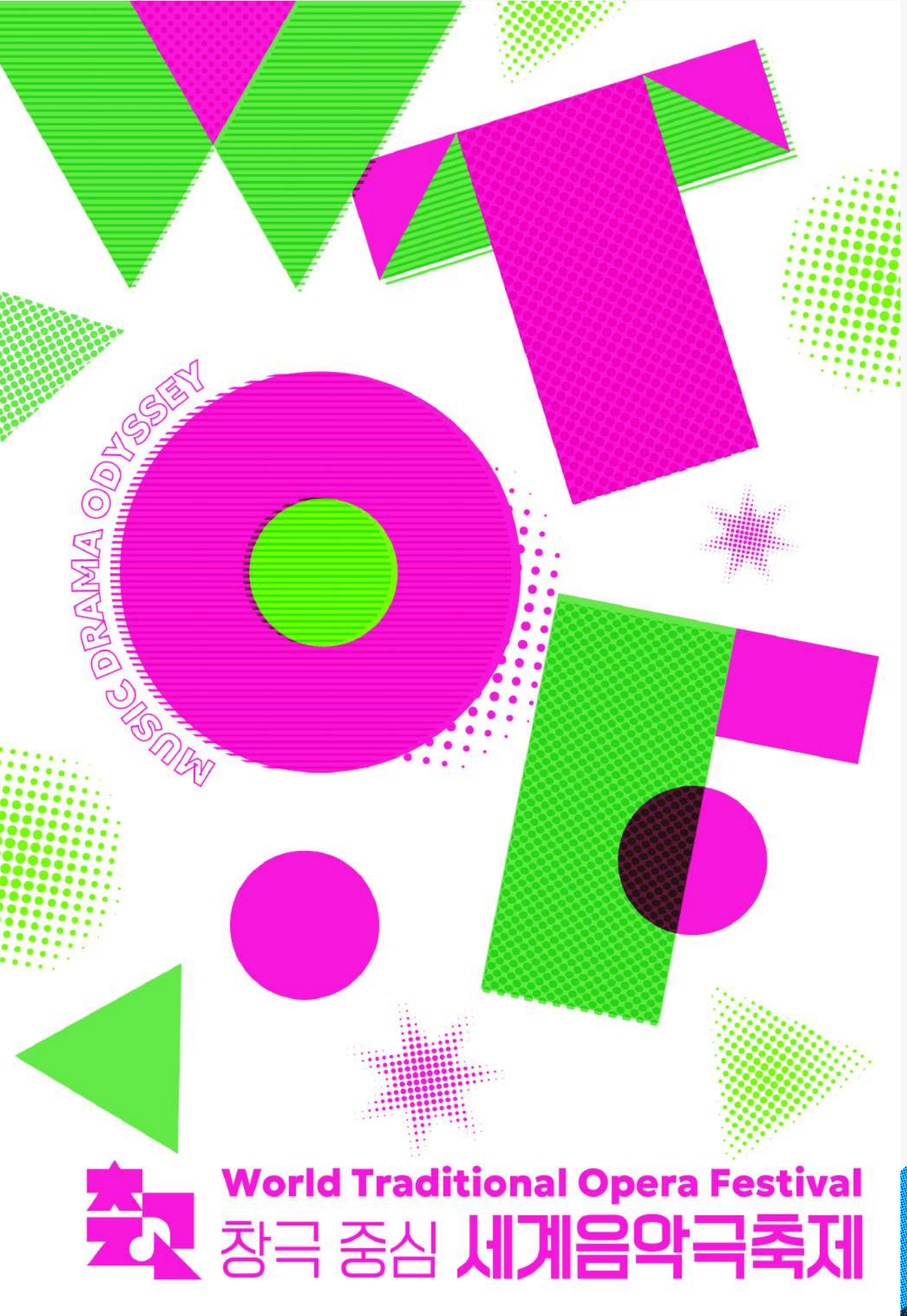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상상 속 전쟁의 상처 위로 피어나는 생명의 노래 <독갑이댁 수레노래>.
지리산 골짜기마다 흩어져 살아가는 여덟 아들을 찾아 나선 독갑이댁과
딸 화선이의 여정을 그린 국립민속국악원의 창작 창극이다.
지리산 자락의 실재 지명과 환상이 교차하며 독창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도깨비와 전령 등 신화적 존재들이 더해져
상상력 넘치는 세계를 완성한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과 모성애를 깊이 있게 그려내며 평단과 관객에게
호평을 받은 <독갑이댁 수레노래>. 지리산의 거친 숨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애틋한 삶이 판소리에 담겨 관객에게 긴 여운과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The Goblin Lady's Cart Song—a song of life blossoming over the wounds of an imagined war. This original changgeuk from the Namwon National Gugak Center follows the journey of the Goblin Lady and her daughter Hwaseoni as they set out in search of her eight sons, scattered across the valleys of Jirisan. Blending real locations around Jirisan with elements of fantasy, the production weaves a unique narrative enriched by mythical figures such as goblins and messengers to create a highly imaginative world. Praised by both critics and audiences, the work renders with great depth the dignity and maternal love of people who hold one another close even through an age of upheaval. Channeling the rugged breath of Jirisan and the poignant lives of its people through pansori, this performance delivers a lasting resonance and consolation to the audience.

작창·음악감독 한승석
대본 배삼식
연출 김정

"이야기는 '유쾌' 소리는 '경쾌'"
- 국악누리



희경루방회도
Gathering at Huigyeongnu Pavilion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창극단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Changgeuk Company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9/17(THU) - 2026/9/18(FRI)
목·금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30,000원 S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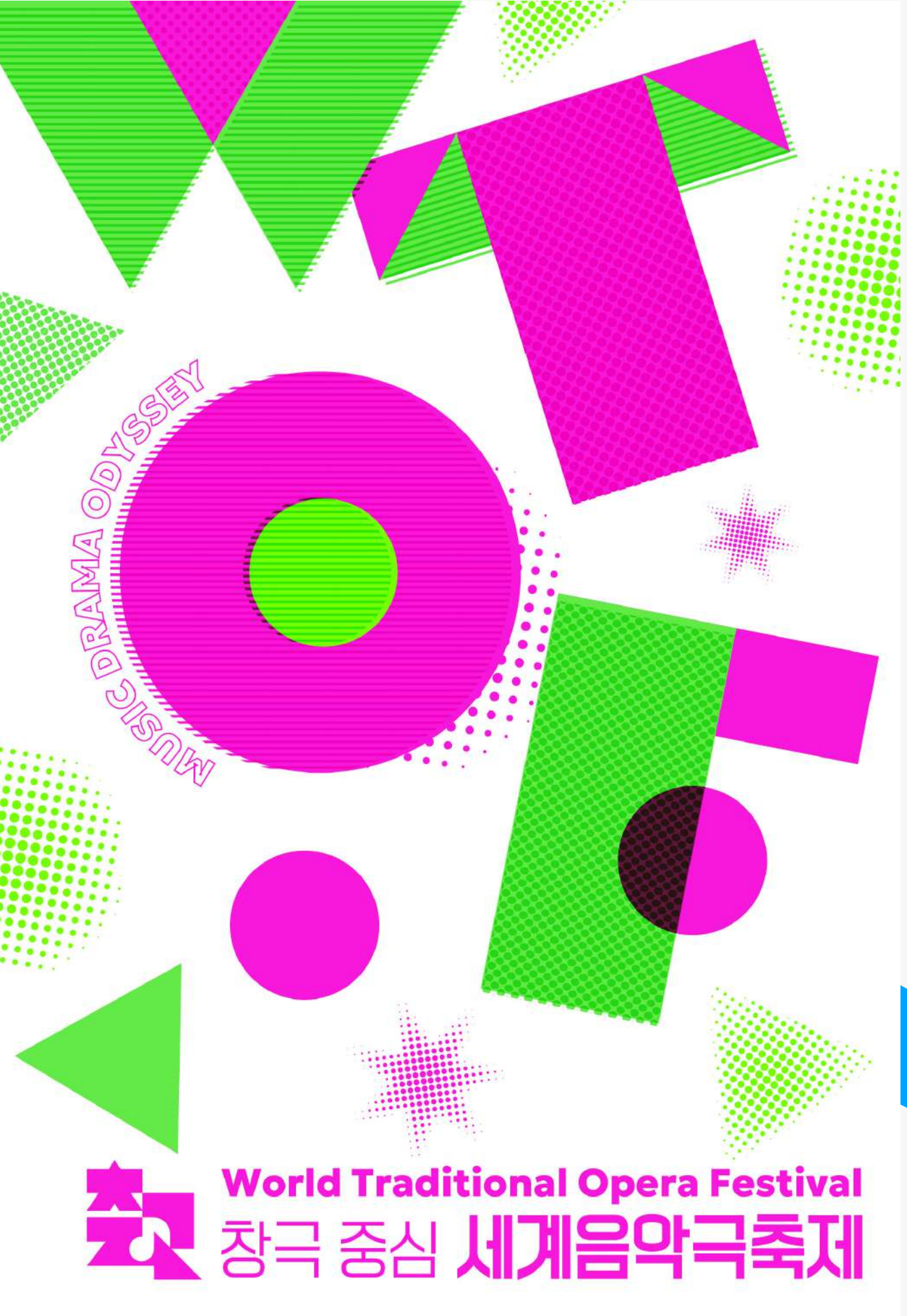
관람시간 RUNNING TIME
8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잊혀진 누각의 풍경이 다시 깨어난다.
<희경루방회도>는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된 동명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과거급제 선비들이 조선시대 광주목의 대표 누각
'희경루'에서 20년 만에 재회한다. 이 선비들의 계회를 전통 소리와 춤,
연희,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더해 입체적인 무대로 구현한다.
과거의 기록 속 장면을 기반으로 무형의 기억과 오래된 풍경이 예술로
다시 피어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변화와 확장을 보여준다.
동시에 광주가 품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The scenery of a forgotten pavilion awakens once more.
〈Gathering at Huigyeongnu Pavilion〉 is a theatrical production
inspired by the historic painting of the same name,
which is designated as a Treasure of South Korea.
The story follows classical scholars who passed the state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they reunite after 20 years
at Huigyeongnu, the iconic pavilion of the Gwangju
re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celebratory gathering
is brought to life on a dynamic, multi-dimensional stage,
seamlessly blending traditional Korean song, dance, folk theater,
and striking sensory imagery. Rooted in scenes from historical
records, this production by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Changgeuk Company allows intangible
memories and ancient landscapes to blossom
into contemporary art. It showcases the continuous evolution
and expansion of traditional arts while presenting
exciting new possibilities for Gwangju's performing arts scene.

총감독 김용호
극본 강보람
연출 유희성
작곡·지휘 강상구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Pansori Factory BADAKSORI

해녀탐정 홍설록
Haenyeo Detective Hong Seol-rok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9/18(FRI) - 2026/9/19(SAT)
금 19:30 토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8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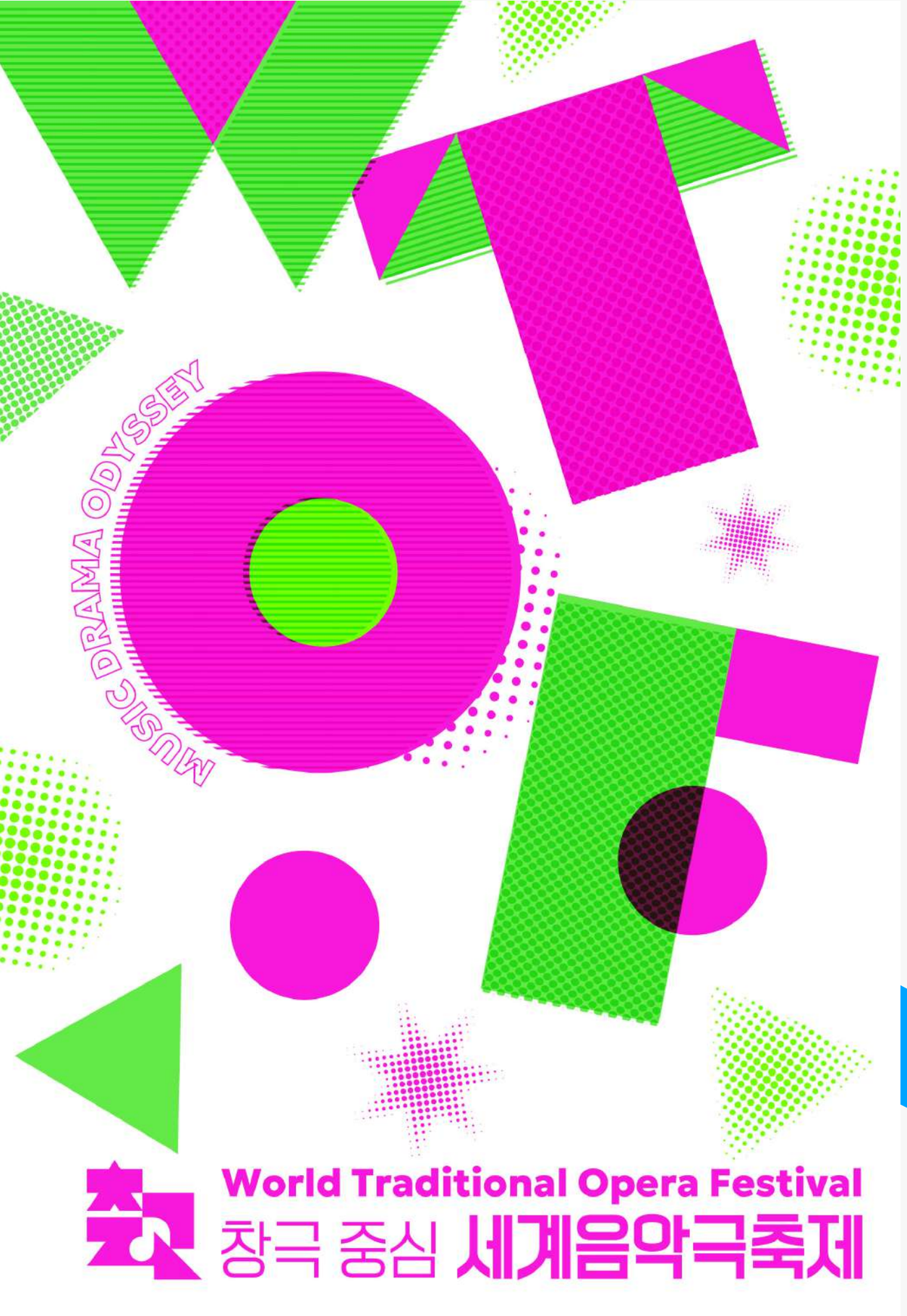
제주 바다를 지키는 해녀들의 이야기 <해녀탐정 홍설록>.
세계인이 사랑하는 소설 '셜록 홈즈'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판소리와
민요, 국악 밴드의 연주를 결합한 한국형 추리극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결탁해 해산물 가격을 낮추고 해녀들을 착취한
해녀어업조합에 맞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운 제주 여성들의
거대한 항쟁을 담아낸다. 거친 바다만큼이나 고된 시절을 견뎌낸
제주 해녀들의 용기와 연대가 소리와 몸짓, 음악으로 다시 살아난다.
가려졌던 해녀들의 목소리를 다시 불러내어 추리의 재미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전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Haenyeo Detective Hong Seol-rok〉 tells the story of the haenyeo (female divers) who guard the seas of Jeju. Inspired by the world-beloved novel Sherlock Holmes, it is a Korean-style mystery that combines pansori, folk songs, and performances by a traditional Korean music band. Se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portrays the great struggle of the women of Jeju who fought to protect their right to survive against a haenyeo fishery cooperative that colluded with the Japanese to drive down seafood prices and exploit the haenyeo.
The courage and solidarity of the Jeju haenyeo, who endured times as harsh as the rough sea, are brought back to life through sound, movement, and music. By summoning once more the long-hidden voices of the haenyeo, it makes for a meaningful stage that delivers both the fun of a myste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원작 최용석
각색 정지혜
연출 이기쁨
작곡·음악감독 김승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장"
– 이데일리

"주인공 홍설록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추리물로서 국악 뮤지컬만의 신명을 느낄 수 있다."
- 분당신문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혜성컴퍼니
Haesung Company

백만사
Million Loves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축제
World Traditional Opera Festival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9/24(THU) - 2026/9/26(SAT)
목·금·토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50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랑이 있었다. 노래가 있었다. 100년 동안의 히트 가요 퍼레이드
음악극 <백만사>. 격동과 파란의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국가대표 가요들을 주크박스 음악극으로 만난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최루탄 연기 속에도 사랑은 피어나고 이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백만송이 장미', '목포의 눈물', '아파트', '취중진담',
'너의 의미'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독립운동가와 기녀의 사랑, 6·25전쟁이 갈라놓은 사랑,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사랑, 8~90년대의 격랑을 지나 밀레니엄 시대의
사랑까지! 히트 가요와 함께 대한민국 연애의 역사를 짚어본다.

There was love. There was song. 〈Million Loves〉 is
a musical theater parade celebrating a century of hit pop songs.
Korea's most iconic hits—the songs that captured the nation's
heart across 100 years of turbulent modern history—come to
life here as a jukebox music-theater piece.
Through the smoke of war and the haze of tear gas, love still
bloomed and parting came all the same. It is a performance that
audiences of all generations can enjoy together, featuring
timeless classics such as 'A Million Roses,' 'Tears of Mokpo,'
'Apartment,' 'Drunken Truth,' and 'Meaning of You.'
From the love of an independence fighter and a courtesan,
to love torn apart by the Korean War, to love in the industrializing
1970s, through the turbulence of the '80s and '90s and on
to love in the new millennium—the history of romance in Korea,
traced through its greatest hits.

극본 이우미
각색·연출 고선웅
음악감독 김혜성
안무 이현정

"수없이 들었던 노래인데도 가사의 의미를 새삼 되새긴다.
동시대의 노래가 나올 때면 가슴이 더욱 뭉클하다." - 한국일보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NT Live
공연 실황 상영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9/25(FRI)
금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60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 Marc Brenner

서쪽 나라의 멋쟁이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원작 존 밀링턴 싱 John Millington Synge
연출 카트리오나 맥러플린 Caitríona McLaughlin

<서쪽 나라의 멋쟁이>를 위해 니콜라 코클란, 에나 하드윅, 시오반 맥스위니가 뭉쳤다.
펍을 운영하는 '페긴 플래허티(Pegeen Flaherty)'의 삶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나면서 발칵 뒤집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살인자를 내쫓기는커녕
지역의 영웅으로 떠받들며 환대하기 시작하고, 그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또 다른 남자가 마을에 발을 들이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영국 국립극장 무대 실황을 담은 이번 공연은 연출가 카트리오나 맥러플린의 손길을 거쳐,
비밀로 가득 찬 서늘하고도 유쾌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Nicola Coughlan (Bridgerton) joins Éanna Hardwicke (The Sixth Commandment)
and Siobhán McSweeney (Derry Girls) in John Millington Synge's riveting play
of youth and self-discovery. Pegeen Flaherty's life is turned upside down
when a young man walks into her pub claiming that he's killed his father.
Instead of being shunned, the killer becomes a local hero and begins to win hearts,
that is until a second man unexpectedly arrives on the scene...
Filmed live on stage at the National Theatre, Caitríona McLaughlin directs
this darkly funny tale full to the brim with secrets.

"니콜라 코클란의 강렬한 연기 변신" - 스탠다드

"아일랜드 고전을 위해 다시 뭉친 니콜라 코클란과 시오반 맥스위니"
- 브로드웨이 월드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NT Live
공연 실황 상영

모두가 나의 아들
ALL MY SONS

원작 아서 밀러 Arthur Miller
연출 이보 반 호브 Ivo Van Hove
무대·조명디자인 얀 페르스베이벨트 Jan Versweyveld

별 다섯 개의 찬사가 쏟아진 브라이언 크랜스톤과 마리안 장 밥티스트 주연의 <모두가 나의 아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중심에 선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전쟁 중 조(Joe)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동업자는 부실 부품 제조 혐의로 구속되고, 큰아들은 작전 중 실종된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 마음의 평화도 함께 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과거가 초래한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인가? 런던 웨스트엔드 공연 실황을 담은 이 작품은 파아파 에시에두, 톰 글린 카니, 헤일리 스콰이어스 등 화려한 조연진이 가세하여 오늘날의 현실을 섬뜩할 정도로 예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Bryan Cranston (Breaking Bad) and Marianne Jean-Baptiste (Hard Truths) feature in a five-star, triumphantly acclaimed new production of Arthur Miller's classic play, from visionary director Ivo Van Hove (A View from the Bridge).
One family, the heart of the American dream. When wartime delivers profits for Joe, it comes at a price when his partner is charged with criminal manufacturing deals, and his eldest son goes missing in action. Will peacetime bring peace of mind, or will he be confronted by the consequence of his actions?
Filmed live from the West End, Paapa Essiedu (I May Destroy You), Tom Glynn-Carney (House of the Dragon), and Hayley Squires (I, Daniel Blake) also feature in this disturbingly prescient play.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9/26(SAT)
토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5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꿈의 캐스팅, 그 스타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 가디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운 연기의 향연"
- 파이낸셜 타임스

© Jan Versweyveld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NT Live
공연 실황 상영

더 피프스 스텝
THE FIFTH STEP

원작 데이비드 아일랜드 David Ireland
연출 핀 덴 헤르토흐 Finn den Hertog

올리비에상 수상자 잭 로던과 에미상 · BAFTA 수상에 빛나는 마틴 프리먼이 만났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12단계 프로그램'을 수년간 이어온 제임스(James)는
신입 회원 루카(Luka)의 후원자가 된다. 두 사람은 블랙커피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된 경험을 통해 위태롭지만 단단한 우정을 쌓아간다.
그러나 루카가 고백의 단계인 '제5단계'에 다다르자 위험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두 사람의 회복을 지탱하던 신뢰마저 흔들리기 시작한다.
런던 웨스트엔드 소호플레이스에서의 공연 실황을 담은 이번 작품은,
연출가 핀 덴 헤르토흐의 지휘 아래 도발적이면서도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Olivier Award-winner Jack Lowden (Slow Horses, Dunkirk) is joined by Emmy and BAFTA-winner Martin Freeman (The Hobbit, The Responder) in the critically acclaimed and subversively funny new play by David Ireland.
After years in the 12-step programme of Alcoholics Anonymous, James becomes a sponsor to newcomer Luka. The pair bond over black coffee, trade stories and build a fragile friendship out of their shared experiences. But as Luka approaches step five – the moment of confession – dangerous truths emerge, threatening the trust on which both of their recoveries depend. Finn den Hertog directs the provocative and entertaining production filmed live from @sohoplace on London's West End.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9/27(SUN)
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9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정점에 오른 두 배우의 완벽한 앙상블"
- 이브닝 스탠다드

"마틴 프리먼과 잭 로던이 챔피언처럼 맞붙는다"
- 왓츠온스테이지

© Johan Persson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2026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2026 Korean Traditional Dance Festival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0/23(FRI) - 2026/10/25(SUN)
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20,000원 S 1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지난해 객석 점유율 100%를 기록하며 전통춤의 저력을 증명했던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가 다시 찾아온다.
올해는 국립무용단을 필두로,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 구미시립무용단,
국가무형유산 태평무전승회, 국립국악고등학교, 대전시립연정국악단,
목포시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이 함께하며 더욱 넓어진 전통춤의 판을 펼쳐낸다.
세대를 건너온 춤사위와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여
전통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다. 전국 무용단이 함께 펼치는 풍성한 축제의 장!
2026년 가을, 국립극장에서 직접 만나보자.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Festival—which proved
the power of traditional dance last year by recording
a 100% seat occupancy rate—is returning.
This year, led by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the festival will feature an even broader stage
for traditional dance, joined by Gangwon State Dance Company,
Gumi Municipal Dance Company,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aepyeongmu Preservation Society,
Gugak National High School, Daejeon Yeonjeong Korean
Traditional Music Group, Mokpo City Dance Company,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Jeonbuk State Gugak
Center Dance Company and Cheongju City Dance Company.
Where generational heritage meets the dynamic vitality
of tomorrow, the lineage of traditional dance seamlessly
bridges the past and present. Featuring an unparalleled gathering
of dance troupes from across the country, this grand festival
offers a profound look into the evolution of movement.
Join us in the autumn of 2026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o witness tradition reborn.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11/27(FRI) - 2027/1/24(SUN)
화·수·목·토·일 15:00 금 19:30
단, 12/25(금), 1/1(금)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7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2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2026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2027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마당놀이
춘풍처도 온다
MADANGNORI CHUNPUNG'S WIFE

원안 김지일
각색 김민정
연출·연희감독 김성녀
작곡 박범훈
안무 국수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객석 점유율 97.2%를 기록, 국립극장을 들썩이게 한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가 <춘풍처도 온다>로 새롭게 돌아온다. 기존 작품에서 하녀 오목이가 춘풍을 개과천선 시켰다면, 이번에는 '이춘풍전' 원작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춘풍의 부인 김씨를 이야기의 중심에 세운다. 무너진 가정을 스스로 일으키고 끝내 남편까지 변화시키는 김씨 부인의 통쾌한 활약을 오늘의 감각으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남편까지 변화시키는 춘풍처 역에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박애리와 정은혜가 더블캐스팅 되어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입담과 시대를 향한 속 시원한 풍자,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명나는 음악과 화려한 군무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한국형 버라이어티 공연의 진수, 마당놀이 한판 속으로 빠져보자!

<Madangnori CHUNPUNG>, which shook the National Theater with an average occupancy of 97.2% from 2018 to 2020, returns with a fresh twist as <Madangnori Chunpung's Wife>. While the previous production had the maid Omogi guide Chunpung toward reformation, this new adaptation stays closer to the original classic novel Yi Chunpung Jeon, placing Chunpung's wife, Madame Kim, at the center of the story. Her exhilarating triumph—rebuilding her broken household entirely on her own and ultimately transforming her husband—is captured through a delightfully modern lens.
Two of Korea's leading pansori singers, Park Ae-ri and Jung Eun-hye, are double-cast as Chunpung's wife, each bringing her own distinctive charm to the role. Featuring the actors' wit, sharp and refreshing social satire, infectious rhythms that will make you move, and spectacular group choreography, this show offers the absolute best of a Korean variety performance.
Dive into the festive spirit of madangnori,
where you can't look away for a single moment!

"당당한 '여풍(女風)'에 객석에선 웃음과 박수가 쏟아져 나온다."
- 이데일리

"겨울은 마당놀이 시즌, 국립극장 대표 스테디셀러"
- 연합뉴스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Through Tender Eyes

극본 오인하
연출 민준호
작곡 손다혜 정종임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2/17(THU) - 2026/12/20(SUN)
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차별'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끝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한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이 돌아온다. '홍경래의 난'이 있었던 조선 후기 1811년, 노비 먹쇠는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누리'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먹쇠와 누리, 언어장애를 가진 소년을 지켜보는 이름 없는 개의 시선을 통해 시대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춘다. 이기거나 버텨내는데 머물지 않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다정히 세상을 '누리는' 삶의 가능성을 그려낸 무대. 오늘의 관객에게 다정한 울림을 전할 것이다.

〈Through Tender Eyes〉— a production that looks deeply into the age-old question of discrimination and explores the ultimate meaning of living together despite the discomforts it may bring — makes its return. The story takes us back to 1811, the year of the Hong Gyeong-rae Rebell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slave named Meoksoe names his daughter 'Nuri' (meaning 'world') in the fervent hope that she will live free of discrimination. Through the eyes of Meoksoe, Nuri, and a nameless dog watching over a young boy with a speech impediment, the play vividly reflects the many faces of prejudice that exist between eras and individuals.
More than merely winning out or enduring, this production portrays the possibility of a life in which people keep one another company and tenderly savor the world — offering today's audience a gentle, resonant echo.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2027 함께, 봄

The Spring Companion 2027

연주 한빛예술단

"음악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담겼다."
- EBS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4/10(SAT)
토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1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국립극장의 대표적인 봄맞이 음악회로 자리매김한 <함께, 봄>. <2027 함께, 봄>에서는 2026년 무대를 채웠던 시각장애인 전문 예술단체 한빛예술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연자와 함께 깊은 울림의 무대를 선사한다.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고, 따뜻한 '봄'을 나누며, 예술로 장벽을 허무는 시간이다. 악보 없이 모든곡을 암보해 연주하는 한빛예술단은 국립극장과 함께 그간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하며, 섬세한 호흡과 압도적인 집중력으로 경이로운 감동을 전한다. 음악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며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봄을 맞이해보자.

<The Spring Companion 2027>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s signature springtime concert, dedicated to dissolving the barrier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rough the universal language of music. Returning after a successful 2026 performance, the Hanbit Performing Arts Company — a distinguished professional ensemble of visually impaired artists — will once again deliver a deeply moving experience alongside leading Korean soloists. It is a time to connect 'together' through music, share the warmth of 'spring,' and transcend societal divides through art. Performing entirely from memory without sheet music, the ensemble will present a fresh repertoire not previously staged at the National Theater, conveying profound emotion through delicate synchronization and remarkable concentration. Join us in welcoming a special spring — one that will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we harmonize into one through the power of music.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NT Live
공연 실황 상영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5/28(FRI), 5/29(SAT)
금 19:30 토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70분(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진지함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원작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
연출 맥스 웹스터 Max Webster

시골에서는 성실한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는 잭은 도시로 나가면 가명을 사용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긴다. 한편 그의 친구 앨저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
두 사람은 각각 마음에 둔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 정체를 이용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의 그물에 얽히고 만다.
올리비에상 3회 수상 배우 샤론 D. 클라크와 은쿠티 가트와가 함께하는 이번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가장 유명한 희극을 유쾌하고 생기 넘치는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다.
연출을 맡은 맥스 웹스터는 화려한 의상과 경쾌한 움직임, 현대적인 유머를 더해
와일드 특유의 재치와 풍자를 한층 대담하고 자유롭게 펼쳐 보인다.

While assuming the role of a dutiful guardian in the country, Jack lets loose
in town under a false identity. Meanwhile, his friend Algy adopts a similar facade.
Hoping to impress two eligible ladies, the gentlemen find themselves caught
in a web of lies they must carefully navigate.
Three-time Olivier Award-winner Sharon D. Clarke is joined by Ncuti Gatwa
(Doctor Who, Sex Education) in this joyful reimagining of Oscar Wilde's
most celebrated comedy. Directed by Max Webster (Life of Pi, Macbeth),
this joyful production brings bold costumes, playful movement
and modern humour to Wilde's razor-sharp wit and satire.

"유쾌하고 화려하고 뜨겁다, 빵빵 터진다"
- 런던 씨어터

"흠잡을 데 없는 희극 작품"
- 브로드웨이 월드

© Marc Brenner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NT Live
공연 실황 상영

위험한 관계
LES LIAISONS DANGEREUSES

원작 피에르 쇼데를로 드 라클로 Pierre Choderlos de Laclos
각색 크리스토퍼 햄튼 Christopher Hampton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Marianne Elliott

올리비에상과 토니상 수상 배우 레슬리 맨빌이 에이단 터너와 함께,
고전 소설을 각색한 크리스토퍼 햄튼의 명작 <위험한 관계>의 새로운 무대에 오른다.
메르테유 후작 부인은 살아남는 법에 능통한 인물이다. 매혹적인 발몽 자작과 손잡은 그녀는
유혹을 전략으로 바꾸고, 욕망을 무기로 삼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맹이 경쟁 관계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향한 싸움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괴할 위기에 이른다.
<워 호스>와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통해 대담하고 감각적인 무대 연출을 선보였던
마리안느 엘리엇이 사랑과 거짓말, 사회적 권력 다툼이 뒤얽힌 긴장감 넘치는 게임을 펼쳐 보인다.

Olivier and Tony Award winner Lesley Manville (Phantom Thread) joins
Aidan Turner (Rivals) in a striking new staging of Christopher Hampton's
celebrated adaptation of the classic novel. Marquise de Merteuil is a master
in the art of survival. Alongside the magnetic Vicomte de Valmont, they turn
seduction into strategy and weaponise desire. But when their alliance collapses
into rivalry, the battle between them threatens to destroy everyone in their path.
Filmed live on stage at the National Theatre, Marianne Elliott (Angels in America)
directs this thrilling game of love, lies, and social war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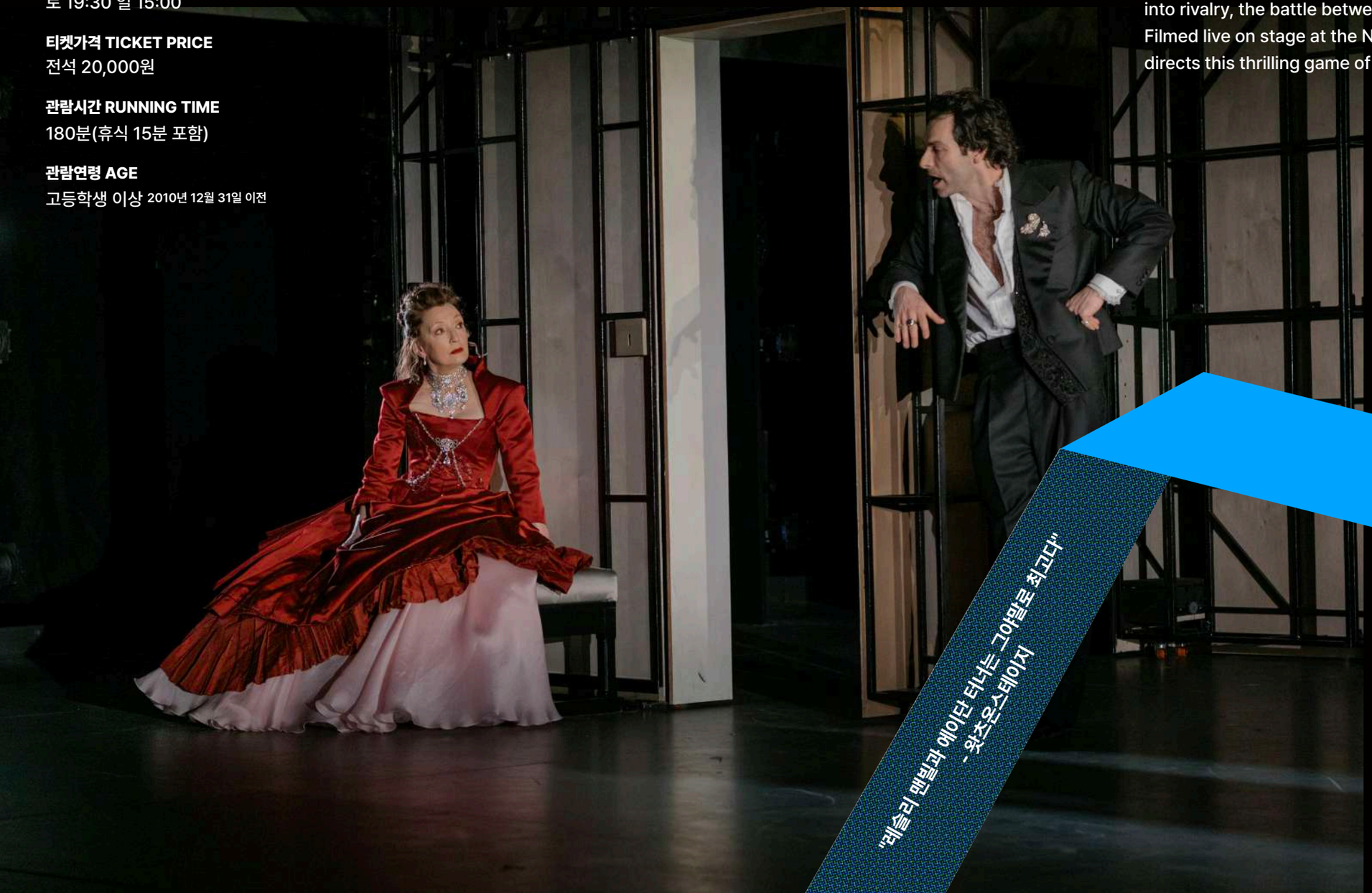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5/29(SAT), 5/30(SUN)
토 19:30 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80분(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고등학생 이상 2010년 12월 31일 이전



"긴장감 넘치고, 관능적이며, 유희적이다"
- 라디오 타임스

"레슬리 맨빌과 에이단 터너는 그야말로 최고다"
- 왓츠온스테이지

© Sarah Lee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6/10(THU) - 2027/6/13(SUN)
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카운트 나인
Count 9

극본 핑크 지저인 3호
번역 이홍이
연출 김정

독특한 시적 언어와 감각적인 서사로 일본 주요 희곡상을 수상한 교토 출신의 극작·소설·연출가 핑크 지저인 3호. 최근에는 수어와 감각 구조 자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수어를 사용하는 연극을 발표하며 일본 연극계에서 독보적인 작업 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그의 대표작 '9초 후에 あと9秒で'를 국립극장이 국내 초연한다.
청각장애인 복서의 고독과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몸에 현실을 비추어, 사회로부터 밀려난 청춘의 초상을 그려낸다. 카운트다운 9초, 경기 규칙이 아닌 한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다. 1, 2, 3, 4, 5, 6, 7, 8,

Kyoto-born playwright, novelist, and director Pink No.3 — celebrated for his distinctive poetic language and evocative narrative sensibility — has garnered major Japanese playwriting prizes for his visionary work. Drawing recently on a profound interest in sign language and the structure of perception, he has carved out a singular niche in the Japanese theater scene by presenting productions performed entirely in sign language.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now presents the Korean premiere of his signature work, 〈Count 9〉. By reflecting reality through the solitude of a deaf boxer and a body that senses the world differently, the play paints a poignant portrait of youth pushed to the margins of society.
At the count of nine, what begins is not merely a rule of the match but the time it takes for a human being to rise again: 1, 2, 3, 4, 5, 6, 7, 8,

RE:MOVE ERA (리 무브 에라)

화성학 실습

쇼아페라, 인스톨레이션

찰나의 찰나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

국립발레단 청년교육단원 갈라콘서트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결과보고회
Fermata: 음악이 머무는 자리

문라이트 오키나와

바른노래 - 머무는 빛

창짝가무극 백범

양방언 솔로 데뷔 30주년 기념공연
UTOPIA - New Horizon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한국 가곡의 모든 것

신년음악회

리턴 투 햄릿

리어왕외전

파우스트

노인과 바다

오월의 화음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on a performance title to view its page.

공동주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School of Da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8/21(FRI) - 2026/8/23(SUN)
금·토 19:30 일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무료

관람시간 RUNNING TIME
8/21(금) 발레 120분 (휴식 10분 포함)
8/22(토), 23(일) 현대·한국 무용 등 10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RE: MOVE ERA
(리 무브 에라)

안무 조주현 김기민 신창호 안덕기 정재혁 전성재
출연 전민철 외 국내외 무용단 소속 무용수 등

"세계 속 한국 무용의 위상을 높였다"
- 한국경제 -

1996년 개원 이후 한국 무용예술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온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공연 <RE: MOVE ERA (리 무브 에라)>를 선보인다.
세계 주요 무대에서 활약 중인 동문 무용수들과 재학생, 교수진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아우르며 무용원이 축적해온 예술적 성취와 동시대적 감각을 집약적으로 펼쳐낸다. 과거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미래 무용교육과 창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Since its founding in 1996, the School of Dance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s opened a new current in Korean dance education. To mark its 30th anniversary, the School presents the special commemorative production ⟨RE: MOVE ERA⟩. Convening alumni dancers performing on the world's leading stages with current students and faculty, this production distills the artistic achievement and contemporary sensibility the School has built up across ballet,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More than a celebration of past accomplishment, this stage points toward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of dance education and creation.

"모든 무용장르를 포괄하는 전문무용단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활동을 통해 전문무용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프로무용단의 효시"
- 일간경기 -



2026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화성학 실습

Practice of Harmony

작·연출·음악 김재훈

<화성학 실습>은 음악의 기초인 '화성학(Harmony)'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조화(Harmony)'를 묻는 실험적인 음악극이다.
고립과 갈등이 깊어지는 오늘날, 김재훈과 동료들이 음악의 근원적 원리로 돌아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화음이 될 수 있을까'.
'오디어블 트레드밀', '뉴 엘리펀트 첼로' 등 이름만큼이나 생경한 새로운 악기들이
제각기 다른 컬러와 모양으로 시각화된 '음 오브제'와 만나 관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자극한다.
음악과 무용 그리고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독창적인 무대로 관객에게 낯설지만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Practice of Harmony〉 is an experimental musical theater work that uses harmony
— the foundation of music — to ask about ‘harmony’ in our society.
In an age of growing isolation and conflict, composer Kim Jae-hoon and his collaborators
return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usic to pose a question: can we become
beautiful chords for one another? New instruments as unfamiliar as their names
— the ‘Audible Treadmill,’ the ‘New Elephant Cello,’ and others — meet ‘Sound Objects’
visualized through color and shape, engaging the audience's eyes and ears at once.
With an original staging that fuses dance, music, and media art, the work offers audiences
a strange yet captivating experience.

* 본 공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입니다.

공동주최

EMT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0/9(FRI) - 2026/10/10(SAT)
금 19:00 토 14:00, 18: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60,000원 S 4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9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무대예술로 확장된 음악 이론이 그 안에 사회를 다루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음악으로 전복시키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대안적인 해법을 상상하게 한다.” - 이민희 음악평론가

“화성학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질문에 상당히 즉각적이고
명료한 돌파구를 내놓으며, 조화의 정의를 다시 질문한다.”
- 성혜인 음악평론가

© wavefilm / 제공 : EMT

2026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공동주최

마틸드 모니에르 Mathilde Monnier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

Soapéra, an installation

컨셉 마틸드 모니에르, 도미니크 피가렐라
안무 마틸드 모니에르

비눗방울과 거품이라는 일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재료를 통해 탄생한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은 퍼포먼스와 시각 설치가 결합된 작품이다. 무용수들은 살아 움직이는 거품과 교감하며 천사, 괴물, 유령 같은 환영적 존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사라지게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품은 형태를 바꾸며 붕괴되고, 작품은 점차 인간에 의해 오염된 현대적 풍경으로 변모한다. 유동적으로 흐르며 공간을 채우는 촉각적인 공기, 그리고 거품은 단순한 무대 장치를 넘어 공연의 중심 배우로 기능하며, 무용수들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된다. 생성, 소멸의 순간과 덧없음을 시적으로 탐구하는 명상적 공연으로, 관객에게 시간 밖의 세계를 이끄는 몽환적이고도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Created from the ephemeral, immaterial media of soap bubbles and foam, ⟨Soapéra, an installation⟩ fuses performance and visual installation. Dancers commune with living, moving foam to summon and dissipate phantasmal presences — angels, monsters, ghosts — in an endless cycle. As time passes, the bubbles shift, lose their form, and collapse, gradually transforming the piece into a contemporary landscape contaminated by human presence. The tactile air and foam, flowing freely to fill the space, transcend mere stage props to become protagonists of the performance, connecting with the dancers like a single living organism. A poetic meditation on transience and the fleeting moments of creation and decay, this performance offers audiences a dreamy, captivating experience that transports them to a world outside of time.

© Marc Coudrais

"조형예술과 안무, 두 세계의 만남을 읽어내는 즐거움"
- 인페르노

"무대를 한 폭의 그림과 같이 그려낸다.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다."
- 라 테라스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10/9(FRI) - 2026/10/10(SAT)
금·토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5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45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공동주최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 Kristine Zipfel

할나의 할나

Challa

연출 이진엽

관객들이 낯선 이와 마주 하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사라지는 모래를 매개로
비언어적인 대화를 나누는 참여형 작품. 덴마크 예술가 헬레 호브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은 이 공연은
정해진 형태의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 만남과 감각이 만들어내는 순간에 집중한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단 하나의 시간을 의미하는 '찰나'.
이 제목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무상함의 아름다움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마주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관객은 낯선 이들과 나누는 말 없는 대화 속에서
함께 흔적을 만들고, 그 흔적이 변형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경험한다.

*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Challa〉 is an interactive work where audience members sit across from a stranger to engage in a non-verbal dialogue, using constantly shifting and vanishing sand as their medium. Inspired by the work of Danish artist Helle Hove, this performance fully immerses participants in the sensation of the 'here and now.' Because sand has no fixed shape and the performance has no fixed form, the experience remains entirely free of judgment and evaluation. The title, Challa —meaning a fleeting instant or a singular, unrepeatable moment—is deeply rooted in Asian Buddhist philosophy. It captures both the beauty of impermanence, where all things inevitably change and fade, and the mindful attitude of fully confronting the present. Within this silent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participants create traces together, witnessing the poignant process as those very marks transform and disappear.

* This project is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0/17(SAT) - 10/18(SUN)
토 18:00 일 14:00, 18: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4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6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2026 서울아트마켓 X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동주최

2026 서울아트마켓 X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떵샤의 모던댄스
Ttunchatdance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

Meta-ballet:
Non-Coppelia Manifesto

움직임 가이드 및 안무 윤상은
작곡 및 연주 한정원
드라마터그 손예운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은 안무가 윤상은이 2020년부터 이어온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을 공연화 한 것이다. 60대 이상의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 워크숍은 여성 예술가, 시각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전공자의 몸을 발레로 만나고 있다.
발레의 클래식 원형을 탑다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한국의 발레 대중화 산업과는 다르게
이 워크숍은 발레가 자기표현의 도구가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발레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엘리트 예술의 정점이 아니라, 모든 몸이 자신의 감각과 서사를 통해
예술의 주체가 되는 열린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코펠리아>는 19세기 제작된 독특한 클래식 발레 작품 중 하나로 책 읽는 인형 '코펠리아'를 두고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다. 인형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코펠리아는 발레 장르가 추구하는 여성 이미지의 전형이면서 생명을 가진
여성의 몸에 대한 사유를 촉발한다.

⟨Meta-ballet: Non-Coppelia Manifesto⟩ is the stage adaptation of the ⟨Ballet for All Bodies⟩
workshop, a project choreographer Yoon Sang-eun has been leading since 2020.
Initially launched for women in their sixties and older, the workshop has grown
to encounter the bodies of a wide range of non-professionals through ballet,
including female artists, visually impaired participants, and others. Departing from
the mainstream commercialization of ballet in Korea—which typically imposes classical
archetypes through a rigid, top-down approach—this workshop focuses on ballet as
a vehicle for self-expression. In doing so, it proposes that ballet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n unattainable pinnacle of elite art, but rather as an open arena where
every body can become the protagonist of art through its own unique senses
and narratives.

* Coppélia is a unique 19th-century classical ballet that revolves around the commotion
caused by a book-reading mechanical doll named Coppélia. Blurring the line between doll and human,
Coppélia embodies the quintessential female archetype long pursued by the ballet genre,
while simultaneously prompting deeper contemplation on the living, breathing female body.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0/18(SUN)
일 16: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6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보기 위한' 발레가 아닌 입을 가진 존재들의 '하기 위한' 발레"
- 윤단우 공연칼럼니스트

"오래된 춤에 대한 애증 속에서, 우리가 가꾸어야 할 발레를
다시금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다."
- 드라마터그 손예운

© 두산아트센터

공동주최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0/21(WED)
수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무료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국립발레단
청년교육단원 갈라콘서트
Young Artistic Fellows Gala Concert

출연 국립발레단 청년교육단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인 청년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그들을 차세대 케이 - 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국립발레단 청년교육단원으로 선발된 25명이 참여하는 갈라 콘서트를 통해 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선보이고자 한다.

The Young Artistic Fellows Program, l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fers young artists who have had limited opportunity to gain on-field experience the chance to receive on-the-job training and stage exposure at Korea's leading national arts companies — nurturing them as the next generation of K-performing arts. As part of this initiative, the 25 dancers selected as 2026 Young Artistic Fellows of the Korean National Ballet take part in this gala concert, presenting the fruits of their dedication and effort.



공동주최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6/10/22(THU)
목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무료

관람시간 RUNNING TIME
85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결과보고회

Fermata: 음악이 머무는 자리

Fermata: Where Music Rests

지휘 이준
반주 박영서
합창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페르마타(Fermata)는 단순히 음을 늘려 연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음을 향해 숨과 에너지를 깊이 응축하는 시간이다. <Fermata: 음악이 머무는 자리>는 그들이 선보일 <구르는 돌멩이>, <Little Man in a Hurry> 등에서 발견한 '쉬어감'의 감각을 삶의 순간으로 확장하는 자리다. 치열하게 달려온 하루와 끝없는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 안에서 고요히 숨을 고르는 곳. 이탈리아어로 '정거장'을 뜻하는 페르마타처럼, 창창한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나아가는 청년교육단원들이 관객과 함께 잠시 머무는 정거장 같은 연주회다. 다음을 향해 다시 움직일 힘을 건네는 다정한 시간이 될 것이다.

A fermata is more than a simple musical indication to prolong a note — it is a moment to deeply gather one's breath and energy in preparation for what comes next. Presented by the National Chorus of Korea's Young Artistic Fellows, 〈Fermata: Where Music Rests〉 extends the sense of 'taking a pause' — discovered in works suchas 〈A Rolling Stone〉 and 〈Little Man in a Hurry〉 — into a reflection on life itself.
The performance offers a quiet space to set aside the rush of daily life and the weight of endless worries, allowing performers and audience to breathe together within music.
Since 'fermata' also means 'station' in Italian, the concert becomes a symbolic stop along the journey of these young artists, who continue forward on the promising train of life and music.
In this shared moment of stillness, the performance offers gentle comfort and renewed strength before everyone moves onward once again.



공동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10/23(FRI) - 2026/10/25(SUN)
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4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35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12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문라이트 오키나와
Moonlight Okinawa

연출 윤혜숙
작가 장영
무대·조명 디자인 여신동
음악 박소연

2024년 ACC 공연 레지던시를 통해 개발된 희곡 <문라이트 오키나와>는 의식을 지닌 관측자들의 관측이, 잠재태를 실제 현실로 만든다는 양자 역학적 아이디어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의도가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자, 여러 세계의 층위를 넘나드는 지극한 러브스토리이기도 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잘 있는 이야기이자, 연극적 신비, 퀴어들, 우람한 야자수가 있는 해변과 까마귀들, 누구도 해칠 마음이 없는 동물령들과 자애로운 달빛이 있는 이야기다.

Developed through the 2024 ACC Theater Residency, 〈Moonlight Okinawa〉 is a literary exploration of the quantum-mechanical concept that observation by conscious observers transforms potential states into actual reality. It is a story that asks what we can hope for when we 'believe' that intention can shape reality. At the same time, it unfolds as an earnest love story that effortlessly traverses multiple dimensions of existence. It is a narrative where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find peace — a tale woven with theatrical mystery, queer characters, beaches with towering palm trees, crows, harmless animal spirits, and a benevolent, all-enveloping moonlight.



© ACC

공동주최

SNU공연예술센터
바른노래 프로젝트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forming Arts Center,
SONG Project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DATE
2026/10/28(WED)
수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7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바른노래 – 머무는 빛

SONG Project : LIGHT

출연 이유림 조윤영 이은샘 박채원
유석균 장민영 홍세위 외
시 이원익 박목월 봉준수 이연주 외
음악 윤학준 김상욱 정재일 김여진 외
연출 박상연

"강물처럼 노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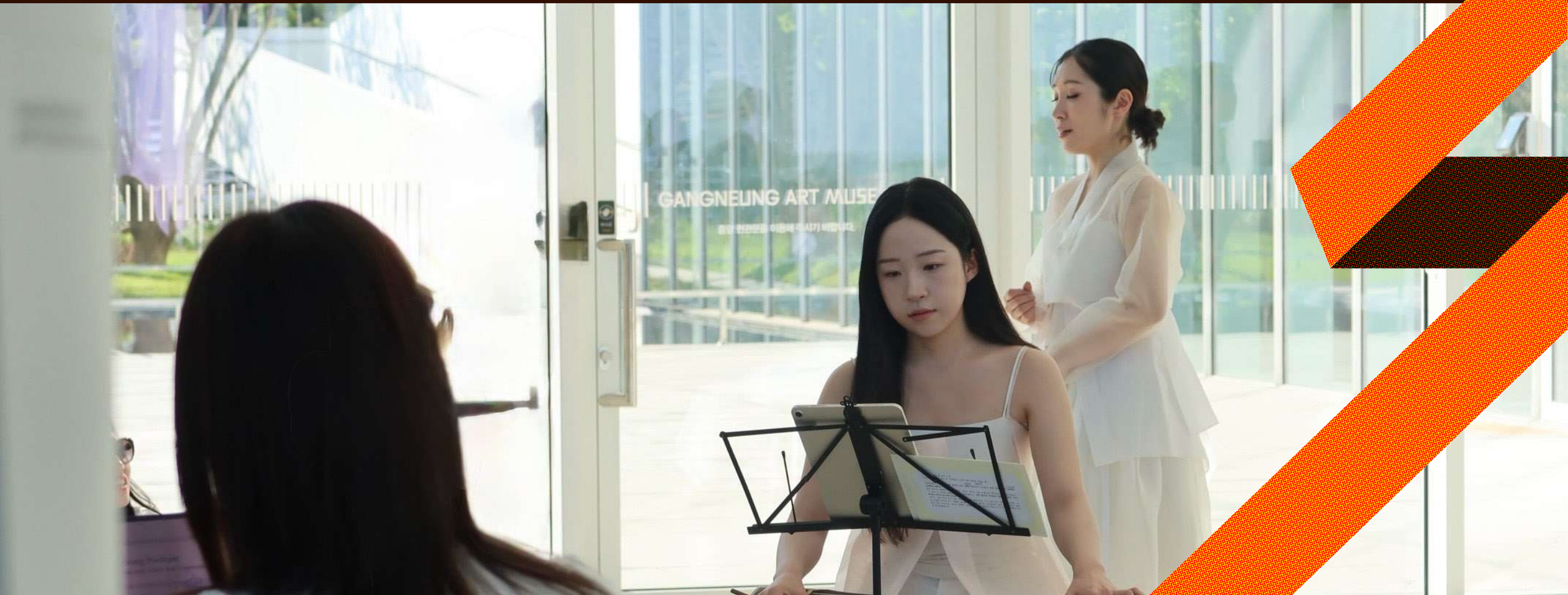
끊임없이 흔들리고 부서지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고요한 흐름으로 존재하는
강물처럼, 노래를 부르는 이의 소리 또한 그러하다.

2025년 시작된 바른노래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관객과 만나는 자리. 기존의 창작곡들과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 그리고 시들이 하나의 서사로 엮이는 융복합적인 공연이다. 조선시대 오리 이원익의 시조부터 박목월 시인의 1940년대 시, 나아가 젊은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만난다. 쉼 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우리의 시와 음악이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무대다.

"One must sing like a river."

Ever trembling, ever breaking, like a river, yet seen from afar, existing as a single tranquil current, so too is the voice of the one who sings.

The SONG Project, launched in 2025, meets its audience for the very first time.
It is a multidisciplinary performance in which existing original compositions, newly created music, and poetry are woven into a single narrative. From the sijo of Joseon-dynasty statesman Ori Yi Won-ik, to the 1940s poetry of Park Mok-wol, and onward to works created by young artists — all come together on the stage of the Haneul Round Theater.
It is here that our poetry and music, flowing ceaselessly like a river,
will take their first steps toward the global stage.





공동주최

서울예술단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창작가무극
백범
Baekbeom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1/14(SAT) - 2026/11/21(SAT)
화·목·금 19:30 수 14:30, 19:30
토 14:00, 19:00 일 14:00
단, 11/14(토) 14:00 공연 없음

티켓가격 TICKET PRICE
R 11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35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극본 장성희
각색·작사 장우성
작곡 원미솔
연출 정태영

2026년, 김구 탄신 150주년을 맞아 서울예술단이
2020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초연했던 창작가무극 <백범>을
새롭게 재창작한다. 작품은 독립운동의 영웅으로만 기억된 김구가 아닌,
차별 없는 세상과 자유로운 독립국가, 사상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선
통합의 시대를 꿈꾸었던 한 인간의 삶과 신념을 조명한다.
또한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그의 이상을
오늘의 시선으로 되새긴다.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지금, 100여 년 전
김구가 남긴 '나의 소원'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소원으로 남아 있다.
<백범>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백범이 될 수 있음을 노래하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Marking the 150th anniversary of Kim Koo's birth in 2026,
the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presents a reimagined
production of the original musical 〈Baekbeom〉,
which first premiered in 2020 at the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Kim Koo
as a legendary hero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production illuminates the deeply human life and convictions
of a man who envisioned a world free of discrimination,
a truly independent nation, and an era of unity that would
transcend the conflict of ideologies and beliefs.
It also revisits, through a contemporary lens, his profound dream
of a peaceful nation leading the world through
the power of culture. In today's world of continuing turmoil
and conflict, "My Wish" — the iconic essay penned
by Kim Koo over a century ago — remains a wish shared
by us all. 〈Baekbeom〉 sings that any one of us,
ordinary people living through our own era, can become
another Baekbeom — and in doing so,
it delivers a profound resonance.

공동주최

(주)엔돌프뮤직
Endorf Music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1/28(SAT) - 2026/11/29(SUN)
토 18:00 일 16: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99,000원 R 88,000원
S 66,000원 A 55,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1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양방언 솔로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

〈UTOPIA – New Horizon〉

Yang Bang Ean Solo Debut
30th Anniversary Concert
〈UTOPIA — New Horizon〉

작곡·음악감독 양방언
구성·아트디렉터 민새롬
연출 양정현

양방언 솔로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 <UTOPIA - New Horizon>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양방언의 음악 세계를 입체적으로 선보이는 무대이다. 클래식, 월드뮤직, 영화음악, 게임음악 등 다양한 장르는 물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구축해온 양방언은 이번 공연에서 대표곡과 신곡을 통해 지난 30년의 음악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어질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음악가 양방언의 내면과 세계관을 무대 위 서사로 확장하여, 30주년 이후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출발점이 될 공연이다.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Yang Bang Ean's solo debut, 〈UTOPIA – New Horizon〉 is a stage that brings his musical universe to life in three dimensions, revolving around piano and orchestra. Yang Bang Ean reflects on his 30-year journey and charts the path ahead through both his signature masterpieces and brand-new works, as he has built his own singular musical language across a wide range of genres—classical, world music, film scores, and game soundtracks—while bridging tradition and modernity, East and West, and past, present, and future. By translating the musician's inner world and philosophy into a narrative on stage, this concert becomes a launching point for a new journey beyond his 30th anniversary.

공동주최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Korean National Concert Orchestr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2/1(TUE)
화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8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L. v.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지휘 김성진
협연 박소영(소프라노) 김정미(메조소프라노)
김효종(테너) 송일도(베이스)
당진시충남합창단 천안시립합창단
연주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지난 3월 '시즌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이어온 2026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의 여정을 집약한 이번 무대에서는 2026 음악감독 김성진과,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KNCO 단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만날 수 있다. 소프라노 박소영과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김효종 그리고 베이스 송일도가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당진시충남합창단과 천안시립합창단이 함께 웅장한 하모니를 완성한다. 청춘의 열정이 더해져 완성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2026 연말, 감동과 희망을 전한다.

Korean National Concert Orchestra (KNCO) presents a magnificent masterpiece, Beethoven's Symphony No. 9 'Choral,' to bring the year to a grand finale.
This stage encapsulates KNCO's 2026 journey, marking the culmination of a 10-month season that launched with the 'Season Opening Concert' last March. Here, audiences can encounter the burning passion and dynamic energy of Music Director Sungzin Kim and the members of KNCO, an ensemble composed entirely of young talent aged 39 and under. Soprano So Young Park, mezzo-soprano Jungmi Kim, tenor Hyojong Kim, and bass Ildo Song feature as soloists, while the Dangjin City Chungnam Choir and the Cheonan City Choir complete a spectacular harmony.
Infused with vibrant energy, this performance of Beethoven's Symphony No. 9 'Choral' promises to deliver deep inspiration and hope at the close of 2026.



공동주최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6/12/8(TUE)
화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85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한국 가곡의 모든 것

All About Korean Art Songs

합창 국립합창단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가곡의 깊은 울림을 담은 무대로 관객을 초대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인의 정서와 삶의 풍경이 깃든 가곡들을 통해 그리움과 설렘, 사랑과 희망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익숙한 선율 속에 스며있는 시적인 아름다움과 따뜻한 감성은 합창 특유의 풍부한 화성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한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대표 가곡부터 국립합창단의 감각적인 해석이 더해진 작품들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이번 무대는 세대와 시간을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한다. 맑고 깊은 합창의 울림 속에서 한국 가곡이 지닌 품격과 미학, 그리고 겨울의 서정을 온전히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Welcome the onset of winter with a moving musical journey filled with the profound resonance of Korean art songs. Through songs imbued with the emotions and landscapes of Korean life, this concert delicately portrays feelings of longing, excitement, love, and hope. The poetic beauty and warmth woven into these familiar melodies are enriched by the lush harmonies unique to choral music, creating an even deeper emotional experience. From beloved classics that have been cherished for generations to works reimagined through the National Chorus of Korea's refined artistic interpretation, the program offers a rich and diverse musical journey that transcends time and generations, inviting all audiences into moments of shared connection and reflection. With the clear and resonant sound of the choir, this performance will become a special occasion to fully embrace the elegance, beauty, and wintry lyricism of Korean art songs.



"한국인이 사랑한 시와 선율의 만남"
- 뉴스1

"K-가곡,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울림"
- 글:한혜원 음악칼럼니스트

공동주최

국립오페라단
Korea National Oper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1/3(SUN)
일 13:00, 17: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120,000원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20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RATING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신년음악회

NEW YEAR'S GALA CONCERT

단장 겸 예술감독 박혜진
지휘 이든
연출 장서문
무대 김유정

국립오페라단은 2027년 새해를 맞아 한·중·일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차세대 라이징 스타들이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을 통한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갈라 콘서트로, 국경과 언어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속 사랑받는 대표 아리아와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중·일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개성과 목소리로 두 작품의 매력을 선보이며, 새해의 희망과 축하를 담은 풍성한 오페라 갈라를 완성한다.
쉽고 친근한 오페라의 즐거움과 동아시아 성악가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음악으로 이어지는 문화교류의 의미와 특별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Korea National Opera welcomes the New Year with a gala concert bringing together distinguished singers and rising sta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Celebrating cultural exchange and friendship across East Asia, the concert unites diverse voices on a single stage through the universal language of music.
The program features beloved arias and key scenes from Giuseppe Verdi's <La Traviata> and W. A. Mozart's <The Magic Flute>, offering audiences an accessible introduction to two of opera's most celebrated masterpieces. With distinctive voices and artistic sensibilities coming together in one vibrant celebration, the concert offers a memorable beginning to the New Year—where music transcends borders and brings cultures closer together.



공동주최

트위스트 1971 공연제작소
Twist 1971 Production Company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1/5(TUE) - 2027/3/7(SUN)
화·목·금 19:30 수 16:00 토 14:00, 18:00
일·공휴일 14:00
※ 2027 설날
2/6/토 - 2/7/일 14:00, 18:00
2/8/월 공연 없음
2/9/화 14:00
2/10/수 공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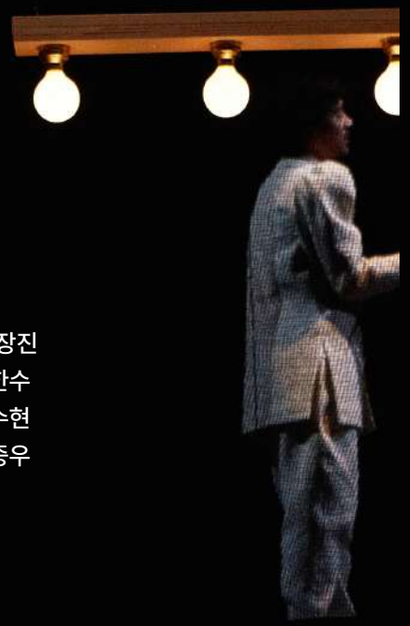
티켓가격 TICKET PRICE
R 77,000원 S 55,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1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리턴 투 햄릿

Return to Hamlet



작·연출 장진
조명 나한수
의상 오수현
음악 김중우

공연 직전의 분장실. 무대에 오르기 전 배우들은 대사를 외우고, 싸우고, 사랑하고, 질투하며 저마다의 불안을 감춘다. <리턴 투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연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마지막 공연 날을 배경으로, 무대 뒤 인간들의 욕망과 좌절, 예술과 생존 사이의 현실을 유쾌하고도 씁쓸하게 그려낸다. 공연보다 더 드라마틱한 백스테이지에서 작품은 웃음과 풍자, 그리고 공연예술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삶을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한때 스타였던 배우와 무명 생활에 지친 배우, 끝까지 무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연극과 인간을 돌아본다.

In the moments before the curtain rises, the dressing room becomes a whirlwind of rehearsed lines, arguments, romance, and unspoken anxieties. Set on the final performance day of a production of Shakespeare's ⟨Hamlet⟩, ⟨Return to Hamlet⟩ captures — with both wit and bittersweetness — the desires and frustrations of those behind the curtain, where art and the necessity of survival collide. In a backstage world more dramatic than the play itself, the production vividly portrays the laughter, satire, and ardent lives of the people who keep the performing arts alive. Through the stories of a once-famous star, an actor weary of obscurity, and those who must hold the stage until the very end, it offers a poignant reflection on theater and humanity today.



"마당극으로 변주된 '햄릿'에 장진 특유의 풍자와 웃음을 담아냈다"
— 연합뉴스

"차가운 웃음과 뜨거운 눈물, 암묵은 유희와 뼈아픈 비판이 교차한다"
— 동아일보

공동주최

극공작소 마방진
Playfactory Mabangzen

리어왕외전

King Lear: Another Story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어왕]
극본·연출 고선웅
제작총괄 서정완

“아버님들,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이
불효막심한 콩가루 집안의 ‘오락적 막장비극’으로 다시 태어나, <리어왕외전>으로 돌아온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는 연출가 고선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알지만 실천은 어려운 가화만사성,
부자유친의 주제를 유쾌한 웃음으로 풀어낸다. 28명의 배우들이 리듬감 있는 대사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늙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얽힌 현실적인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려낸다. 그러나 어찌 부모가 아닌,
자식이 아닌 채로 존재할 수 있는가. 진한 웃음 뒤에 묵직한 질문을 남기는 무대가 펼쳐진다.

"Fathers, how long do you intend to live? I'm just asking." Shakespeare's tragedy 〈King Lear〉 is
reborn as 〈King Lear: Another Story〉, an 'entertaining, over-the-top tragedy'
of a hopelessly undutiful, dysfunctional family. Director Koh Sun-woong, whose affection
for humankind never wavers, unpacks with cheerful humor the themes of family harmony
and the bond between parent and child — ideals everyone everywhere knows yet finds hard
to live by. Twenty-eight actors, through rhythmic dialogue and dynamic movement,
sketch with wit the all-too-real conflicts that entangle ag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yet — how can one be neither parent nor child? Beneath its hearty laughter,
this is a stage that leaves behind a weighty question.

장소 VENUE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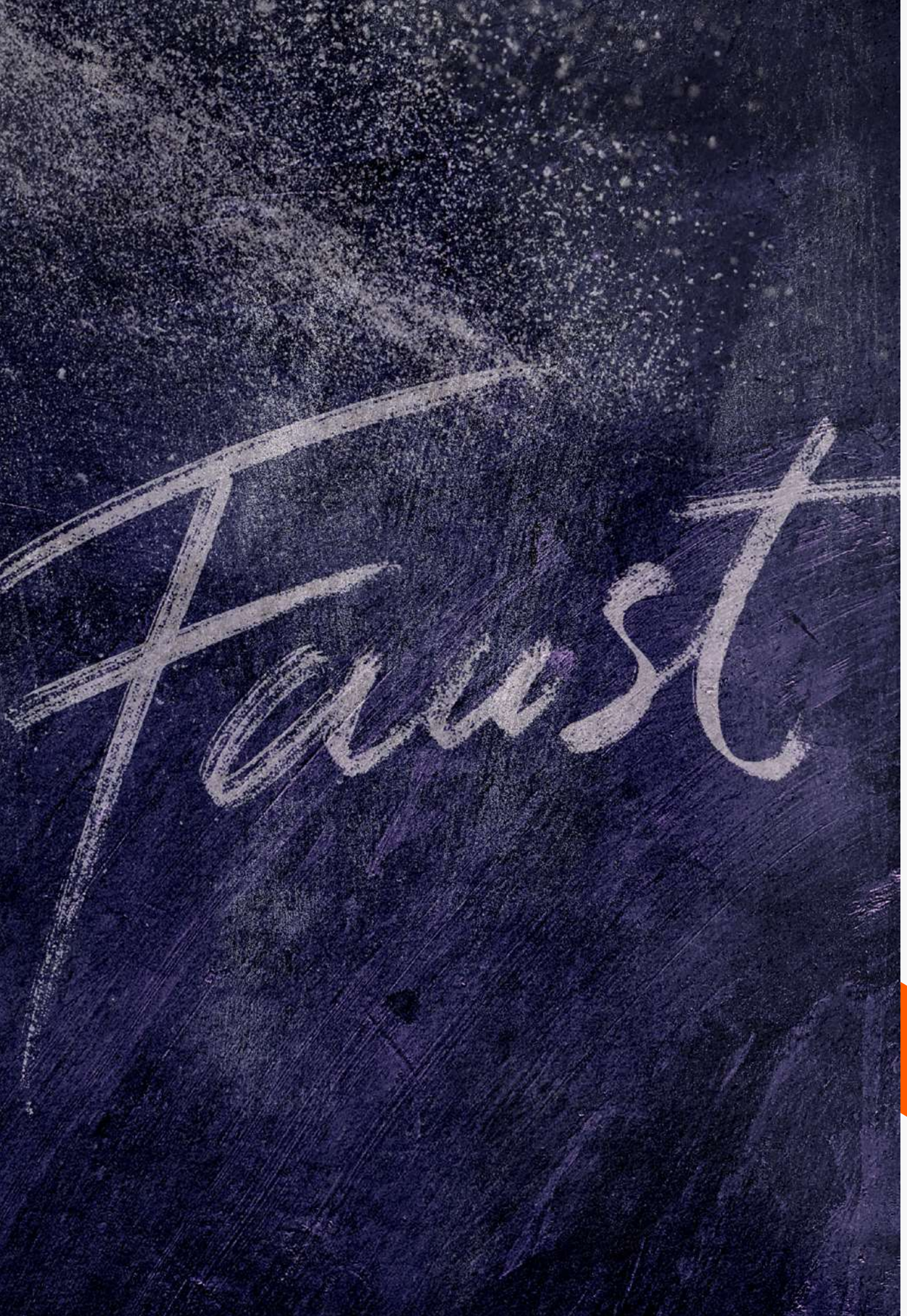
일시 DATE
2027/3/9(TUE) - 2027/4/11(SUN)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전석 66,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2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120분 동안 몰아치는 배우들의 연기, 리어왕의 뻔한 스토리를 연극적 재현성이나 일루전(illusion)의
연출적 트릭에 기대지 않고, 하늘극장 원형무대 후면과 주변을 활용해 배우들이
의상과 소품을 걸치고 등장하며 마치 리어왕 외전 서사를 연극적 놀이성으로 달린다.” - 매일신문



공동주최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파우스트
FAUST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4/23(FRI) - 2027/5/2(SUN)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티켓가격 TICKET PRICE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160분 (휴식 있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박정희

인간의 영원한 화두, 괴테의 위대한 걸작이 2027년 국립극단 '세계고전 시리즈'로 찾아온다. 신과 악마의 거대한 도박,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의 끝없는 욕망과 구원의 서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유혹의 드라마 <파우스트>가 박정희 연출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
강렬한 미장센을 선보이는 박정희 연출은 방대하고 난해하게 느껴졌던 고전의 벽을 과감히 허문다. 유혹과 방황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거침없이 파고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갈망하는 인간 자체의 숭고한 존재성을 강렬한 무대 미학으로 선보인다. 고전의 묵직한 무게감과 동시대적인 대중성이 만난 해오름극장의 압도적인 초연. 지루할 틈 없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파우스트>를 직접 만나보자.

One of humanity's enduring questions finds its most powerful expression in Goethe's monumental masterpiece, Faust, presented in 2027 as part of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s World Classics Series.

A cosmic wager between God and the Devil. A man who sells his soul to Mephistopheles in pursuit of limitless knowledge, pleasure, and fulfillment. Faust traces an epic journey through desire, temptation, failure, and ultimately redemption. Now, this landmark work of world literature is reimagined by director Park Jung-hee.

Known for her visually striking stagecraft, Park breaks through the perceived distance and complexity of the classic, revealing its urgent relevance for contemporary audiences.
Through Faust's relentless pursuit of meaning and his refusal to accept the limits of his existence, the production explores the essence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our endless striving, our capacity for error, and our yearning to transcend ourselves.

Bringing together the grandeur of a literary classic and the immediacy of contemporary theatre, this new production transforms the Haeoreum Grand Theater into a spectacular theatrical experience. Visually breathtaking and emotionally resonant, Faust invites audiences to encounter Goethe's timeless masterpiece anew.

공동주최

㈜문컴퍼니
Moon Company

장소 VENUE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DATE
2027/4/30(FRI) - 2027/5/21(FRI)
화·목 19:30 수·금 15:00, 19:30
토 14:00, 18:00 일 14:00
※ 어린이 날(5/5/화) 14:00, 18:00
※ 부처님 오신날(5/13/목) 14:0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77,000원 S 55,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8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AGE
중학생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프로듀서 문승용
예술감독 유승봉
연출 김명훈
출연 이덕화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가 한국 남해안의 작은 포구를 배경으로한 동명의 연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라져가는 어촌의 풍경과 오래된 노동의 가치, 그리고 한 세대가 다음세대에 전하는 삶의 태도를 두 인물의 이야기에 담아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덕화의 연기인생 5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평생 바다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늙은 어부를 연기하며, 한 인간의 승패를 넘어 어떠한 상실 앞에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의 품위를 그려낸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묵직한 질문을 건네는 무대가 될 것이다.

Ernest Hemingway's timeless masterpiece The Old Man and the Sea is reimagined for the stage, set in a small fishing port on Korea's southern coast. Against the backdrop of a disappearing fishing village, the production captures the enduring value of labor and the attitude toward lif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Marking the 55th anniversary of Lee Deok-hwa's acting career, the production features one of Korea's most beloved actors as an aging fisherman who has spent his entire life at sea. Beyond victory or defeat, it portrays the quiet dignity of a human spirit that refuses to surrender, even in the face of profound loss.
Transcending time and place, this production will offer audiences a profound question.



공동주최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장소 VENUE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Grand Theater

일시 DATE
2027/5/18(TUE)
화 19:30

티켓가격 TICKET PRICE
R 40,000원　S 30,000원

관람시간 RUNNING TIME
85분 (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AGE
초등학생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오월의 화음

Harmony in May

합창 국립합창단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의 힘! 국립합창단이 특별한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영화음악, 한국 가곡, 동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합창의 다채로운 매력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고자 한다. 특히 어린이 관객도 자연스럽게 공연에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음악과 흥미로운 구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노래와 감동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선사한다. 풍성한 하모니와 생동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의 가치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Bringing the power of music to bind all generations,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presents
a special family concert. Spanning classical works, film scores, Korean art songs,
and children's songs, the program reveals the many sides of choral music in a way
that feels warm and welcoming. With familiar melodies and a lively program that draw
even young audiences fully into the performance, it offers a memorable evening
for the whole family to share in song and stirring moments. Rich harmonies
and a vibrant stage come together in a concert that connects hearts through music
— a meaningful occasion that celebrates empathy and unity across the generations.



"행복한 음악회, 함께! 따뜻한 봄의 합창"
- 아주경제

소통하는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국립극장 공연장 및 편의시설

국립극장 오시는 길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on a category to move to the corresponding page.

소통하는 국립극장

NTOK Communication

홈페이지

www.ntok.go.kr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극장의 모든 공연정보 및
최신소식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무료회원(엔톡회원)으로 가입하면
국립극장의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엔톡(NTOK)회원 혜택

· 뉴스레터: 공연과 행사,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국립극장의
각종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매월 4회)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수신에 동의한 자에 한함

· 홈페이지 · 전화 · 현장 예매 시 예매 수수료 무료

· 국립극장 기획공연 최대 20% 할인 * 공연별 차등 적용

· 문자 안내 서비스 및 각종 이벤트 우선 참여기회 제공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극장은 공연의 감동을 더 많은 관객과 나누고자
창극 · 무용 · 국악관현악 등 우수 레퍼토리 공연의
고품질 실황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다양한 디테일까지 감상해 보세요.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archive.ntok.go.kr/gagakuk

· **우리동네·학교 국립극장**
전국 공공기관, 문예회관, 학교 내 상영



계간 국립극장

1977년부터 50년간 제호와 구성을 달리하며
관객 곁을 지켜온 국립극장 정기간행물이 2026년 봄,
'계간 국립극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연 4회 발행되는 '계간 국립극장'은 공연 리뷰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전시·축제 등 극장 안팎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로비에서
'계간 국립극장'을 직접 만나 보세요!
편히 읽으신 후, 집으로 가져가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공식 소셜미디어

국립극장의 모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공식 소셜미디어를 구독하면 보다 생생하고 재미있는
극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언제나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 ntong2
- ntong_ntong
- NTOKstory
- ntok_
- blog.naver.com/ntok2010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Museum of Performing Arts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 전문 박물관으로 공연예술의 역사를
기록 · 보존 · 공유하기 위해 2009년 12월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는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 내로 이전하여
전시 및 공연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 | ntok.go.kr/Museum



공연예술자료실

공연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공연예술자료실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아카이브 플랫폼 archive.ntok.go.kr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국립극장 별관 지하 1층 도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열람 가능
-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실)



해오름 북라운지

해오름극장 2층 로비에 마련한 문화 휴식 공간입니다.
국립극장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공연 관람 외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층
- 화-금 10: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11:00 – 18:00

(공연이 있을 경우 공연 종료시까지 탄력 운영)



상설전시실 파주

상설전시실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역사적 흐름과
중요 공연예술 문화유산 자료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2층
- 화-일 10:00 – 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별별실감극장 파주

별별실감극장에서는 공연이 없는 날에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공연예술 장르와 최신기술이 접목된
몰입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1층
- 화-일 10:00 – 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예술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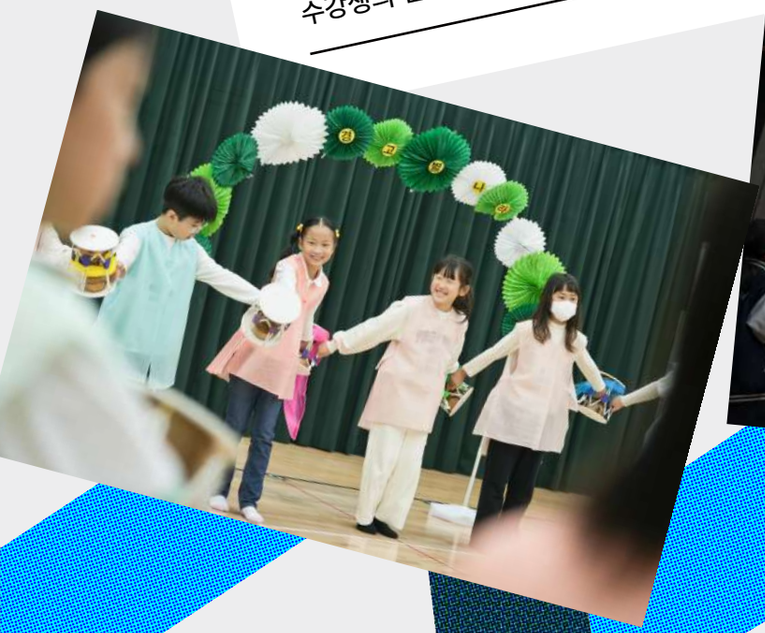
Arts Education Programs

국립극장은 공연예술 저변 확대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해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우수한 재원과
공연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이 시대 관객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어린이 예술학교
매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합예술교육입니다.
특정 주제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통예술 · 연극 · 움직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창극아카데미
판소리로 만드는 음악극인 창극의 창작 전반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을 비롯해 판소리 · 연극 · 무용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며
수강생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탭니다.





단체 예술교육

예술피크닉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일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소풍 떠나듯 가볍게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꿈나무 스테이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 예술계 다양한 직업을 배워보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극장 곳곳의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창 · 제작 현장을 살피며, 한 편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이뤄지는
다양한 과정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예술교육

하루 예술
감각적인 접근으로 예술을 즐기는 성인 대상 일일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하루의 경험을 통해 만난 온전한 쉼이 일상으로 이어져
예술을 꾸준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추어 관현악단
공연에서 느꼈던 감동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악을 취미로 배우며 함께하는 기쁨에 갈증을 느꼈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지도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더 큰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예술아카데미
국악기 · 판소리 · 한국무용 등 전통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기초 실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 등
유수의 강사진에게 배우며, 기본기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NTOK Connect

국립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 공연예술의 인적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전통공연예술 창작자 발굴 ·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국악관현악단)
작품의 뿌리가 되는 작창 및 극본 · 안무 · 작곡 분야의 창작자와 연주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여 예술 창작 제작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젊은 예술가들은 약 1년 동안
다양한 창작 워크숍, 국립극장 전속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 개발,
관객 · 전문가 대상 시연 공연까지 단계별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_ 창극 작가 프로젝트

극본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무대가 되는 창극 창작의 출발점!
국립창극단은 창극 창작의 기반이 되는 극본에 주목해,
전통 판소리의 음악적 구조와 배우의 소리 · 연기가
긴밀히 어우러지는 창극 대본을 개발합니다.
선발된 작가들은 약 6개월간 멘토링과 창작 워크숍,
작품 개발을 비롯해 작창가 · 배우 · 제작진과의 협업까지
단계별 제작 과정을 경험하며 작품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완성된 작품은 시연회를 통해 첫 무대에 오르며,
향후 국립창극단 정규 공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2026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2026. 11. 7.(토) - 2026. 11. 8.(일) 하늘극장



국립무용단 _ 안무가 프로젝트

한국무용 창작의 미래, 지금 여기에서!
국립극장은 매년 새로운 한국무용 안무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제작 시스템 안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경의 <메아리>(2023), 이재화의 <탈바꿈>(2024),
이지현의 <옷>(2025) 등 우수작을 배출했으며,
댄스콘셉트필름 제작, 작품의 장편화,
국립무용단 레퍼토리로의 확장 등을 통해
신진 안무가의 성장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6 안무가 프로젝트〉
2026. 11. 6.(금) - 2026. 11. 8.(일) 달오름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_ 작곡가 프로젝트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레퍼토리와 미래를 향한 도전!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공모를 거쳐 선발한 작곡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국악계 저명한 작곡가의 1:1 멘토링부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 리딩 세션, 내부 시연회 등을 통해
상상 속 음악 세계를 현실로 실현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새로운 호흡으로 도전하는 작곡가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같이 완성하는 뜨거운 열정과 노력은
국악관현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뜻깊은 시도가 될 것입니다.

〈2026 작곡가 프로젝트〉
2026. 8. 21.(금) 달오름극장



국립극장 공연장 및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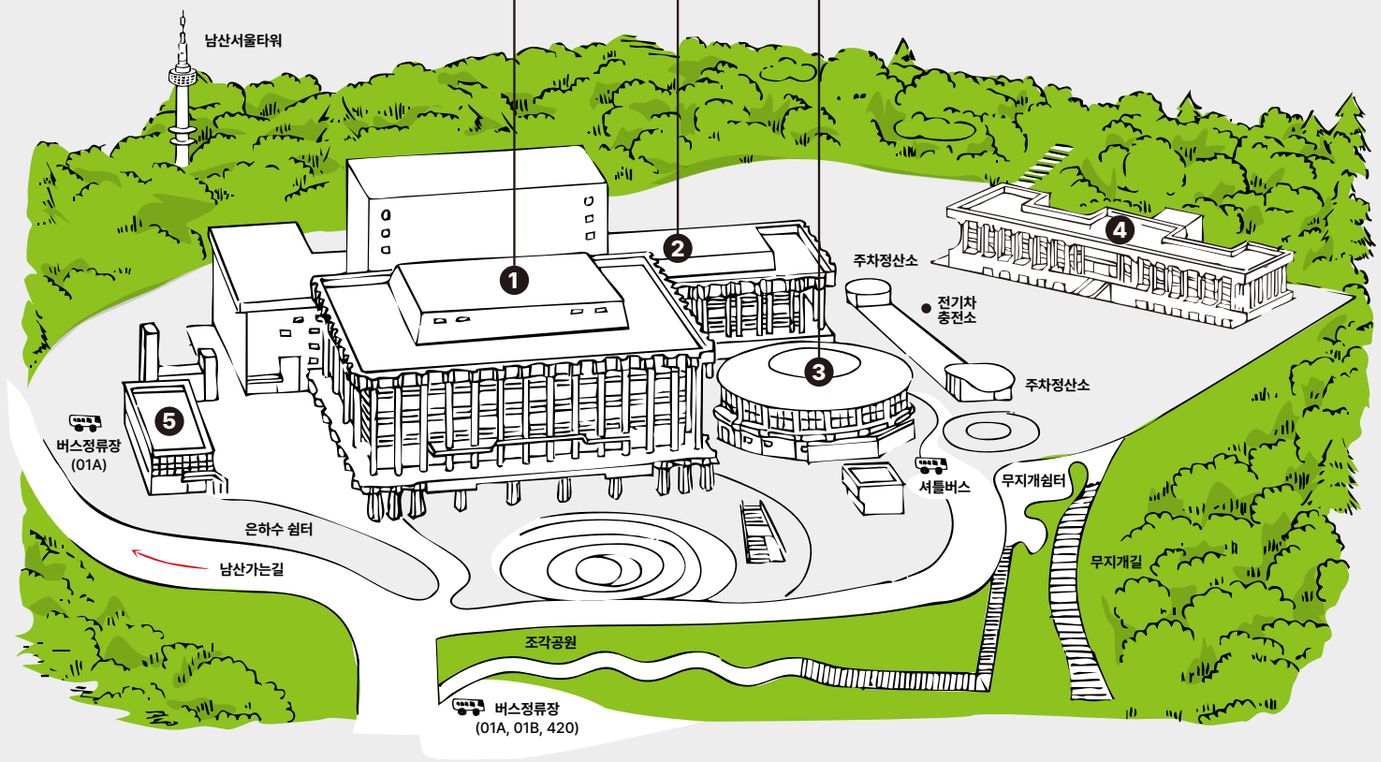
Theaters & Facilities

운영시간은 공연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working hours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theater schedule.

해오름극장 Haeoreum Grand Theater ☀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춘 1,221석 (휠체어석 12석 포함) 규모의 대극장
Proscenium stage with 1,221 seats (including 12 wheelchair seats)

달오름극장 Daloreum Theater ☾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춘 510석 (휠체어석 6석 포함) 규모의 중극장
Proscenium stage with 510 seats (including 6 wheelchair seats)

하늘극장 Haneul Round Theater ☁
원형 무대를 갖춘 627석 (휠체어석 6석 포함) 규모의 국내 최초 돔형공연장
First domed theater in Korea with 627 seats (including 6 wheelchair seats)



❶

고객지원센터 Customer Service Center
공연안내, 티켓 예매, 셔틀버스 운행시간 등 극장 이용 시 각종 문의 및 편의시설 안내
Providing every service for customers such as ticketing, program information and shuttle bus schedule.
평일 Mon – Fri 09:00 – 18:00
주말 · 공휴일 Weekend Holiday 10:00 – 18:00
공휴일인 월요일(휴관일) 휴무
Closed on Observed Holiday Monday
점심시간 Lunch Break 12:00 – 13:00

해오름 북라운지 Haeoreum Book Lounge
해오름극장 2층 | 2F, Haeoreum Theater
화-금 Tue-Fri 09:00 – 18:00
주말 · 공휴일 Weekend · Holidays 11:00 – 18:00
월요일(휴관일) 휴무 | Closed on Monday
02-2280-4026, 5834

센트럴 윤잇 (Yunit) Restaurant
해오름극장 L층 | LF, Haeoreum Theater
화-일 Tue-Sun 11:00 - 22:00
0507-1357-9580

카페(해오름) Cafeteria
해오름극장 1층 | 1F, Haeoreum Theater
해오름 극장 공연 2시간 전 ~ 인터미션 종료 시까지
Open from 2 hours before performance at Haeoreum Grand Theater until the end of intermission
02-2280-5845

❷

편의점 Dal Ramen Bar
달쉼터 | 달오름극장 지층
Ground Floor, Daloreum Theater
연중무휴 Open year-round
08:00 - 20:00 | 02-2280-5844

❸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하늘쉼터 | 하늘극장 1층
1F, Haneul Round Theater
연중무휴 Open year-round
08:00 - 20:00 | 02-2280-5844

❹

별관 Annex

공연예술자료실
Archives Library for Performing Arts
별관 지하 1층 | B1, Annex
평일 Mon – Fri 09:00 – 18:00
점심시간 Lunch Break 12:00 – 13:00

별별예술마루 Byeolbyeol Arts Maru Studio
별관 지하 1층 | B1, Annex
예술교육 및 행사 일정에 따라 운영
Operated according to the schedule of arts education programs and various events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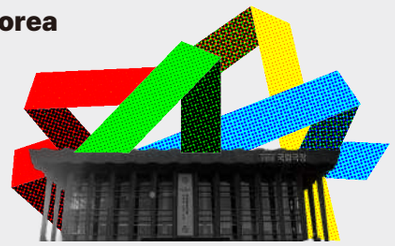
구내식당 (하늘자리) Cafeteria
기계동 2층 | 2F, Machinery Building
중식 Lunch 11:30 - 13:00
석식은 예약제로 운영 | Dinner is by reservation only
02-2280-5843

카페 (하늘자리) Cafe
기계동 2층 | 2F, Machinery Building
연중무휴 Open year-round
10:00 - 16:00 | 02-2280-4184

국립극장 오시는 길

Your Visit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버스 By bus

- 420번, 01번 남산순환버스
  국립극장 · 반얀트리호텔 정류장 하차
- 144, 301, 7212번
  장충동 · 동국대입구 정류장 하차
  → 420번 환승 후 국립극장 하차

- Bus route 420, 01 runs directly pas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light at 'National Theater of Korea, Banyan Tree Seoul'.
- Routes 144, 301 and 7212 stop on Jangchung-dong, Dongguk Univ. Entrance → Transfer to 420

지하철 By subway

- 3호선 동대입구역(6번 출구, 국립극장까지 도보 15분 소요)→ 동대입구역 · 장충동 정류장에서 01번 남산순환버스 환승 후 국립극장 · 반얀트리호텔 정거장 하차

-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Dongguk Univ. on Line No. 3, which is a 15 minute walk.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 → Transfer to Namsan Circulation Bus 01

주차장 이용 안내 Parking

공연 관람객: 5시간 미만 5천원
(공연 관람권 내 바코드로 무인정산기에서 할인 정산)
5,000 won up to 5 hours for ticket holders
(Use the barcode on your ticket to get a discount on parking fees.)

문의 02-2280-5815

국립극장 셔틀버스 By shuttle bus

- 관람(탑승)객의 수요와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따라 탄력적 운행

공연 전 Before the performance

- **타는 곳 Boarding**
  -동대입구역(3호선) 6번 출구 남산 방향 100m이동, 동국대입구 · 장충동 정류장
  -In front of Namsan Circulation Bus stop,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운행구간 Route**
  -동대입구역(3호선) → 국립극장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National Theater of Korea

- **운행시간 Timetable**
  -매회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 까지 10분-15분 간격 탄력적 운행
  -Every 10-15 minutes from 1 hour to 2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공연 후 After the performance

- **타는 곳 Boarding**
  -하늘극장 앞 셔틀버스 승강장
  -In front of Haneul Round Theater

- **운행구간 Route**
  -국립극장 → 동대입구역(3호선) 1번 출구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 4, 5번 출구 맞은편 광희사거리 앞
  -National Theater of Korea → Exit 1 of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Across from Exit 4, 5 of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Line No. 2,4,5)

- **운행시간 Timetable**
  -공연 종료 후 10분까지 탄력적 운행
  -Available for 10 minutes after the performance